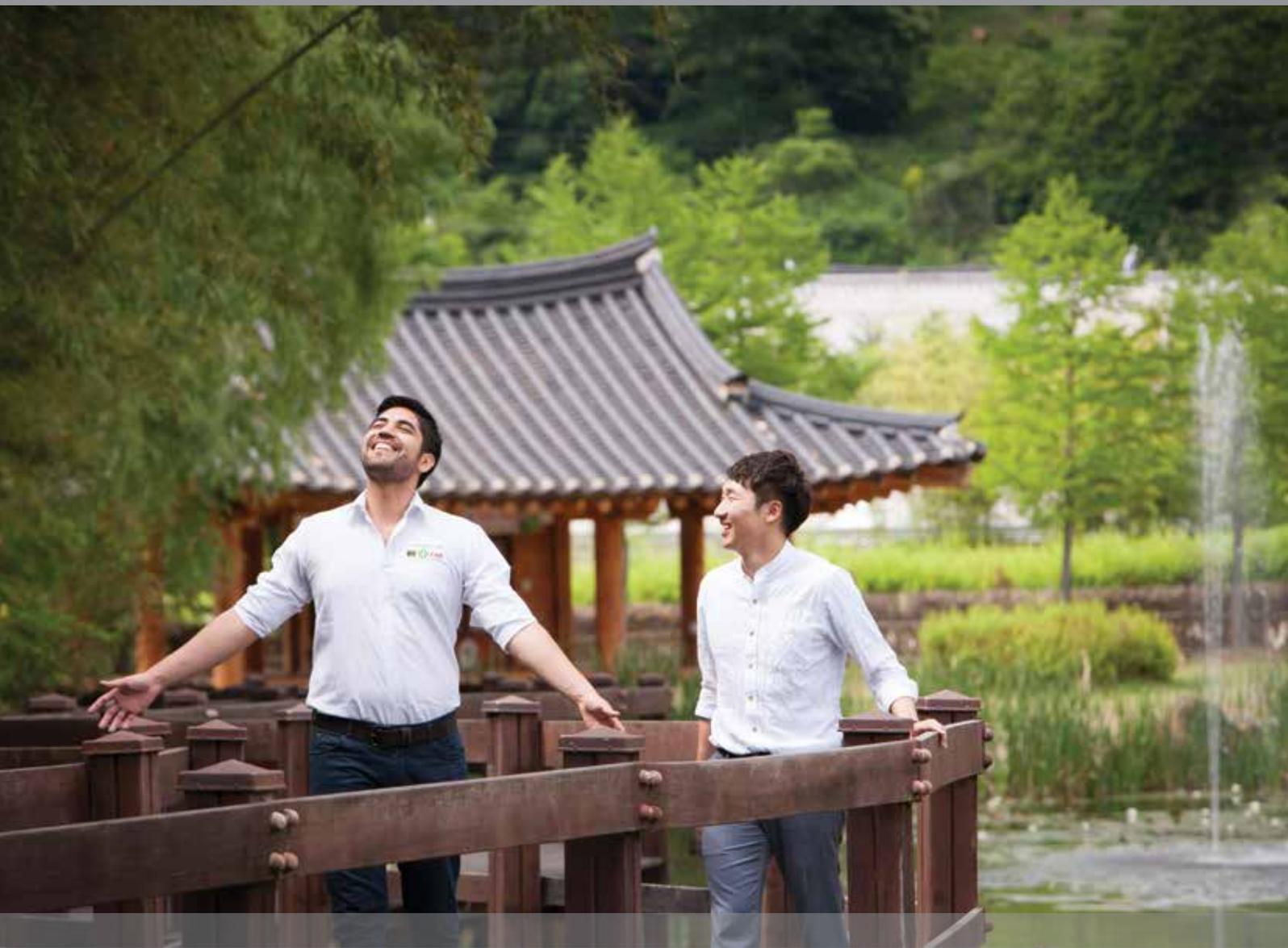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5 Summer Vol.41



In Schaeffler

page 08 세플러가 만난 사람
팝페라 가수 이사벨



For Life

page 32 패밀리가 떴다
소담소담, 가족과 함께 있어 더욱 시원한 여름나기



To Communicate

page 48 따뜻한 시선
EVERGREEN(서울)의 봉사 현장





Cover Caption

이번 '글로벌 세플러'에서는 PU HV TRB Mr. Ramirez, Jesus와 창원공장 HR Development 이장선 사원이 담양읍 대나무 숲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한여름이 비껴간 듯 시원한 바람이 부는 숲을 거닐며 햇살에 스며든 한국의 여름을 즐겼습니다.

발행일 2015년 7월 15일(통권 제41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박영곤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허우두 그래픽
 인쇄 솔텍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AGE 08 : 세플러가 만난 사람
 팜페라 가수 이사벨이 말하는 음악



PAGE 12 : 세플러, Best of the best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기술명장 정철용 계장의 발자취



PAGE 20 : 글로벌 세플러
 창원공장 Mr. Ramirez, Jesus와 이장선 사원이 만난 한국의 여름



PAGE 24 : 당신을 초대합니다
 품질보증 안산 최홍선 사원과 친구들이 함께 나눈 영양만점 오리백숙



PAGE 28 : 해피투게더
 서울사무소 축구동호회 '허리케인'

Cover Story

04 일상 속의 세플러
 항공기 속 베어링

In Schaeffler

06 세플러, 인생을 걸다
 끊임없는 소통과 팀워크는 단단하고 굳건한 조직을 만든다

08 세플러가 만난 사람
 노래에 빛은 진심, 마음을 울리다
 팜페라 가수 이사벨

12 세플러, Best of the best
 장인은 노력이라는 행동으로 말한다

14 당신을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리운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격려

16 체험 1박2일
 바빠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의 품에서 한가로이 노닐다

20 글로벌 세플러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여름을 말하다

24 당신을 초대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한
 삼총사의 푸짐한 우정

26 Mobility for tomorrow
 디트로이트모터쇼를 가다

28 해피투게더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강력한 솜으로 우승을 노린다!
 '허리케인'

세플러+원

2015 SUMMER Vol.41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PAGE 32 : 패밀리가 뒸다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함형석 부장 가족의 양평 메기축제 체험기



PAGE 40 :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김기원 사원이 안내하는 만화전시회



PAGE 42 : 영화 속 과학이야기
 SF영화에 등장한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나



PAGE 48 : 따뜻한 시선
 달콤하고 짭조름했던
 EVERGREEN(서울)의 봉사 현장



PAGE 52 : 세플러 동행취재
 <날아라 슈퍼보드>를 기억하나?

For Life

32 패밀리가 뒸다
 소담소담, 가족과 함께 있어
 더욱 시원한 여름나기

36 Law school of Schaeffler
 말 많고 탈 많은 '김영란법', 도대체 뭘까?

3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후쿠오카에서 처음 만난 일본

40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거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된다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

42 영화 속 과학이야기
 인공지능 '입은 듯 안 입은 듯',
 착용형에서 일체형으로 진일보

To Communicate

45 Schaeffler FOCUS

48 따뜻한 시선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힐링 체육대회
 EVERGREEN(서울)의 봉사 현장

50 새로운 시선
 세플러코리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52 세플러 동행취재

54 Schaeffler NEWS

59 Schaeffler Hotline

하늘을 나는 어린 적 꿈, 당신에게 얼마큼 다가갔나요?

세플러와 함께 세상을 연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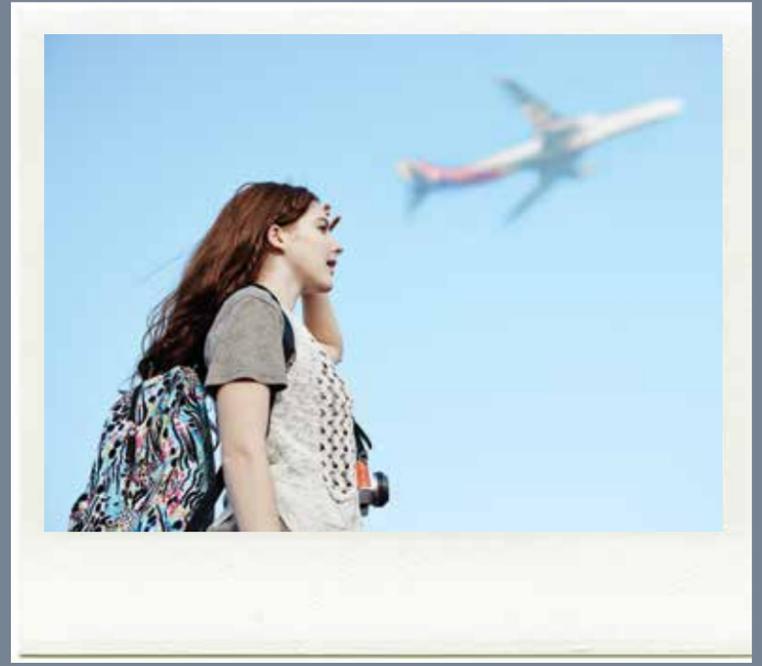
땅만 보고 걷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을 스친 자리에 긴 꼬리를 남긴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어릴 적 꾀꾀 눌러 쓴 소원을 담아
있는 힘껏 하늘로 날린 종이비행기처럼
커다란 몸집의 비행기가 가볍게 하늘을 납니다.

하늘 아래 집들이 점점 작은 점이 되어
아래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내 푸른 하늘만이 가득한 창밖을 바라보며
둥실 포개져있는 흰 구름 속을 산책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하늘을 나는 꿈을 꾸봤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니다.
무심코 비행기에 오르는 지금이
어렸을 적 그리던
그 꿈이었다는 것을 되새깁니다.

비행기는 사람과 문화를 싣고
한달음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이어주는 기술,
세플러가 함께합니다.



항공기 엔진에 숨어있는 세플러의 기술, 메인 샤프트(Main shaft) 베어링

비행기가 날기 위해 필요한 추력을 발생시키는 항공기 엔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동축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속, 고하중, 고온의 운전 환경, 그리고 항공기의 특성에 맞게 높은 정밀도를 가지고 있는 메인 샤프트 베어링은 고순도의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며, 윤활유 및 윤활 방법도 운전 환경에 맞게 최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공기 엔진 제작업체인 Pratt & Whitney사의 PW4000 엔진, CFM international의 CFM56 계열 등의 엔진에 세플러의 메인 샤프트 베어링이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엔진들은 현재 운항 중인 에어버스 A330, 보잉 737 항공기 등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팀워크는 단단하고 굳건한 조직을 만든다

엔진시스템 BD 남장현 상무

안산공장에서 자동차사업부문 엔진시스템사업을 맡고 있는 남장현 상무. 그와 베어링의 인연은 1986년부터 현재 세플러코리아까지 이어졌다.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남장현 상무가 세플러코리아와 함께한 시간을 들려준다.



2001년 이나베어링 시절, 안산공장 사무실 증축을 위해 임시 사무실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근무하던 당시의 남장현 상무.

조직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소통

남장현 상무의 신입시절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나베어링에 입사한 남장현 상무는 이후 회사가 세플러코리아로 통합되면서 세플러 가족이 되었다. “입사했던 당시에는 국내 자동차 연간 생산대수는 지금의 약 60% 수준인 2백8십만 대 정도였으며, 매년 10% 이상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나베어링은 니들롤러베어링만을 전문으로 국내시장에 생산, 공급했던 소규모 회사였어요. 국내 기술만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제품 생산 기술과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을 지닌 신제품들을 보고 입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이나베어링은 독일 본사조직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관여하고 있었고, 실무진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이었다. “처음에는 기업문화의 차이, 직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안정된 조직과 조직을 연결하는 문화’를 갖추지 않고서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고객과 시장으로부터 좋은 신뢰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후 조직 내부 팀워크를 확고히 다지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활동이 사내 동아리 활성화였다. 지역 마라톤 대회 참여, 등산, 축구 등의 동아리 활동은 직급 또는 부서에 관계없이 팀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장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로, 경험은 곧 성공으로

남장현 상무에게 가장 잊지 못할 순간은 바로 IMF 시기였다. 외환위기로 국가 전체가 어려운 시점에서 이나베어링도 위기가 닥쳤다. “원자재의 80% 이상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회사는 독일 마르크화를 기본화폐로 쓰고 있었는데, 마르크화 대비 원화환율이 두 배 이상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고객사와의 타협을 끊임없이 시도하며 고객과 회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Win-Win’ 방안을 선택하게 됐다. “회사는 고객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고, 과감한 국산화 추진, 원가절감, 가격인하 등을 통해 신뢰

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곧 기회로 삼아 회사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갖게 되었고, 단순 니들 베어링 조립생산 회사에서 자동차 파워트레인(엔진 및 트랜스미션) 핵심부품과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 공급하는 안산공장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이후 안산공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상당기간 생산능력 제약에 따른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과 교훈으로 단 한 번의 실수나 실패 없이 고객수요에 100%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안산공장은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던 기계식 태핏(Mechanical Tappet)의 모든 생산공정을 국산화 할 수 있었다.



'제2회 인천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안산공장 마라톤동호회. 모두가 기록에 연연치 않고 골인지점을 향해 함께 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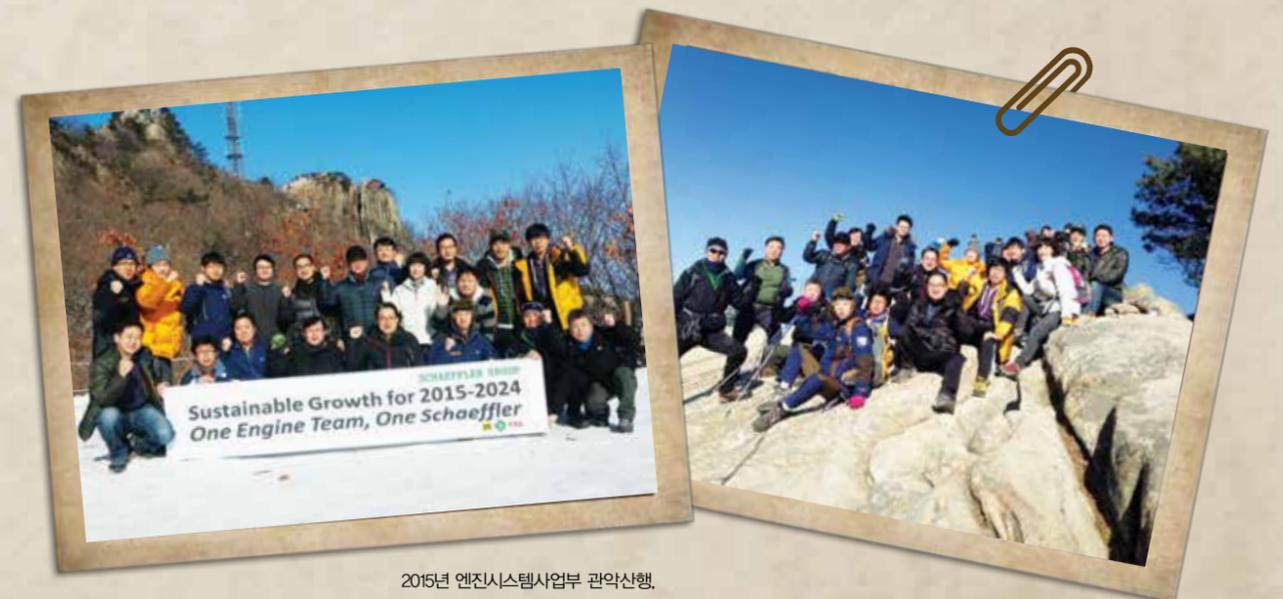
세플러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성장기회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 가는 '역동성'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세플러코리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사원들이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고 소통하여 다함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는 '역동성'

현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과거의 고속성장이 멈추고 정체 또는 감소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남장현 상무는 과거에 경험해왔던 성공요인이나 몸에 밴 관습만으로는 고객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거나 시장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세플러코리아는 10년을 미리 내다보며 추진하는 장기 사업전략들이 각 사업부 단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는 이러한 계획들이 잘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세플러 그룹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기회 확보와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남장현 상무는 새로 입사한 세플러 가족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플러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상되는 리스크와 성장기회를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해 가는 '역동성'입니다. 앞으로 30년 이상 세플러코리아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입사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변화와 불확실성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개인과 회사 모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장현 상무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더했다. 함께 소통하여 굳건한 팀조직을 이끌고, 고객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였다.



2015년 엔진시스템사업부 관악산행. 더욱 단단하고 굳건한 팀워크를 위해 팀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노래에 빛은 진심, 마음을 울리다

팜페라 가수 이사벨

'팜페라'라고 하면 대개 고급스럽고 화려한 무대에서 부르는 어렵고 딱딱한 음악이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팜페라는 오페라와 우리에게 친숙한 팝을 넘나드는 음악으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라드만큼이나 익숙하다. 여러 팜페라 가수들의 활동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팜페라. 여기에 드라마 <구가의 서> OST '마이 에덴(My Eden·내안의 낙원)'으로 대중들에게 팜페라를 한 번 더 크게 알린 팜페라 가수 이사벨을 만났다.



화려한 무대보다는 길 위에서 다가가는 일

'미국 3대 오페라단 최연소 프리마돈나 출신', '뉴욕 카네기홀 독창회', 그리고 '애국가'를 가장 많이 부른 엔터테이너'까지 이사벨에게는 단연 최고, 최초라는 화려한 수식이 붙는다. 하지만 그는 관중들이 올려다보는 무대보다, 대중들과 같은 시선으로 마주하는 길 위에서 더 많이 노래한다. 그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구세군의 빨간 외투를 입고 자선냄비와 함께 길거리 공연에 나선 지 올해로 8년째다.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우연히 보고 자신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다가 구세군에 직접 연락을 하게 됐다는 이사벨.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목소리로 자선냄비 옆에서 노래하는

길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되었다. 빠른 걸음으로 무심히 그 옆을 지나치는 사람들도 그의 노랫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갖자는 그의 메시지를 듣는다. 한 두 해의 이벤트가 아닌, 수년간 재능 기부로 이어간 것은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은 그의 진심일 터다. 이사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은 자선냄비 옆만이 아니다. 발달장애아동들에게 1년 가까이 음악치료를 하며 음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마음으로 한발 더 다가가고 있다. 자신의 노래를 들려주고 아이들의 노래를 들으며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감정을 주고받았다는 그는 지난 2010년 발달장애아동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던 자폐아동이 그날 공연에

서 자신과 함께 '넬라판타지아(Nella Fantasia)'를 끝까지 불렀고, 이 무대는 그의 음악 인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되었다. "또 한번은 발달장애아동들과 야구 올스타전에서 애국가를 함께 불렀어요. 저보다도 그 친구들이 공연을 통해 더 많은 자신감을 얻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벅차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부르는 노래

사회의 어두운 곳에 자신의 목소리로 불을 밝히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래하는 이사벨.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자신의 노래라는 그다. 이사벨은 어렸을 적 꿈이었던 세계적인



노래를 통해 말로는
다 표현하기 힘든
진심을 전해요.
노래는 저와 세상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거리 공연이든, 큰 무대든
저만의 무대는 아니에요.
무대는 관객과 제가 소통하는
귀한 자리죠. 노래를 통해
듣는 사람의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어루만져져 아픈 마음이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이사벨이
추천하는
팝페라
음반

켈틱 우먼(Celtic Woman)의
'Believe'



네 명으로 이루어진 아일랜드 여성 크로스오버 그룹인 켈틱 우먼은 넘치는 에너지와 신비로움이 가득한 정서 등 켈트 음악의 매력을 한껏 표출한다.

일 볼로(Il volo)의 'Il Volo'



세 명의 이탈리아 소년이 결성한 일 볼로의 데뷔앨범 '일 볼로'는 각자의 음역대를 가진 세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폭풍처럼 밀려드는 감동을 자아낸다.

헬레네 피셔(Helene Fischer)의
'Farbenspiel'



독일의 국민가수 헬레네 피셔는 팝에서 클래식까지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중저음과 고음 모두 파워가 있는 시원한 음색을 자랑한다.



그에게는 화려한 수식이나 연변보다 진심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되어 이미 오페라로 실력을 인정받으며 오페라 가수로 이름이 알려졌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소통하기 위해 팝페라 가수가 되는 꿈을 새로 갖게 되었고, 과감히 팝페라 가수로의 도전을 시작했다. 이전과는 다른 장르로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전통 오페라의 무거운 창법을 푸는 작업부터 경쾌하고 발랄한 팝페라의 발성까지 다시 공부해야 했다.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와 팝페라를 부르는 이유는 단지 대중들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록부터 아이돌 댄스음악까지, 새롭게 쓰는 그의 음악사전

대중들과 더 가까이에서 호흡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이사벨. 헤비메탈 밴드인 디아블로와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포 더 피스(For The Peace · 평화를 위하여)'는 록과 메탈의 강렬함과 오케스트라 사운드의 웅장함이 어우러진 '록페라' 장

르의 노래로, 이를 발매해 여러 장르의 조화를 이뤄내고 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가는 그는 앞으로도 난타의 쟁쟁한 복소리를 사운드에 넣거나, 아이돌 댄서들과 함께 끊임없는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며 대중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계획이다. 화려한 수식이나 연변보다는 진심이라는 단어가 그와 어울리는 듯하다. “거리 공연을 하든, 큰 무대에 서든 저만의 무대는 아니에요. 무대는 관객과 제가 소통하는 귀한 자리죠. 그런 자리인 만큼 노래에 제 진심을 담고 싶어요. 저의 음악을 통해 듣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제 노래가 사람들의 슬픔을 어루만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을 다한 목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이사벨의 노래 또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귀를 기울이게 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 위해 그는 오늘도 노래에 진심을 담는다.

장인은 노력이라는 행동으로 말한다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기술명장 정철용 계장



한 분야에 최고가 된 사람의 발자취를 좇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지름길을 걷는 것이다. 창원공장 단조 세그먼트 정철용 계장이 단조 부문의 한 길을 걷은 자는 내년으로 30년 끊임없는 연구로 기술명장이라는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있는 정철용 계장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다.

끊임없는 노력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동력

정철용 계장의 신발은 성할 날이 없다. 하루에 몇 번이고 사무실과 현장을 오르내리며 단조기 도면을 분석하고, 단조기를 보수 관리하는 정철용 계장의 신발 뒤축은 새까맣게 닳아있다. 그렇게 몇 십 켤레의 신발을 갈아치우며 체득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단조 품에 녹여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산비용 또한 절감시켰다. 단조품 생산자의 역할뿐 아니라 단조 기계를 보수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단조기의 최고 숙련 기술자 정철용 계장. 최근에는 기술명장으로 추천되어 몸소 습득한 기술을 자신만의 것으로 두지 않고 기술 자료집에 자신의 노하우를 쏟아 부어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데 뜻을 더하고 있다.

세플러인들에게 기계 매뉴얼에 나와 있지 않은 생생한 기술을 전달하는 역할을 새로 맡은 만큼 단조 세그먼트 기술명장은 누구보다 단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단조품에 대한 지식이 두터워야 한다. 단조기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기계로 도입된 초기에는 기계를 익히기 위해 매뉴얼에만 의존해야 했다. 정철용 계장은 영어로밖에 번역되지 않은 매뉴얼을 붙잡고 밤새 한 장 한 장 사전을 찾아가며 기계에 대해 알아갔다. 매뉴얼을 통해 활자로만 기계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고장 나면 다 같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손수 기계를 고치며 그렇게 단조기를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갔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하우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끊임없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익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일은 아니지만, 노력이 시간과 비례하여 축적되면 그 끝에 자기만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을 것입니다.”



“책으로만 습득한 지식은 반절 지식입니다. 기계로만 체득한 지식 또한 반절 지식입니다. 이론과 기계를 접목시키는 것이 완전한 지식입니다.”

세플러의 기술명장제도란?

1. 생산 현장의 최고 전문가를 기술명장으로 선발하여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대우하여 명예와 보상을 부여하고, 능력 발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각 공장별로 전문직 인원의 1% 이내에서 선발되며, 소속부사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중에서 기술명장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3. 기술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직무 경력 20년 이상의 직원 중에서 기술력, 회사에 대한 공헌도, 동료직원들의 신뢰와 존경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발한다.
4. 기술명장은 대상 직무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후배직원들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5. 기술명장의 임무 수행은 매년 기술명장심사위원회의 심의, 평가를 받게 되며, 3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게 된다.

노력이 일구어낸 기술, 또 다른 명장을 위한 밑거름으로

눈을 감으면 기계 매뉴얼이 그림처럼 떠오른다는 정철용 계장은 아직까지도 귀퉁이가 닳은 매뉴얼을 수시로 살핀다. “내년이면 세플러에 몸담은 지 30년입니다. 30여 년 전, 신입으로 입사하여 한 대 뿐인 단조기를 봤을 때 이 기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혹독하게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 단조기가 네 대로 늘었고 저도 기술명장으로 선정될 만큼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단조기에 대해 백퍼센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공부해야지요.” 다른 부서들은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설비보전팀에 수리를 맡기지만, 단조 세그먼트 팀은 작업자가 생산부터 보수까지 단조기에 대한 전체를 아울러야 하는 만큼 후배들에게 많은 기술을 전수하고자 하는 정철용 계장은 마음이 바쁘다. 훗날 자신의 자리가 비었을 때 공유된 기술로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탄탄한 기술을 발판 삼아 또 다른 기술명장을 배출하고 싶다는 정철용 계장. 혼자만이 일군 길이 아니기에 기술명장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아직도 부끄럽다는 그이지만, 자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술을 전수하는 그는 진정한 기술명장이다.

언제나 그리운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니의 격려

설비보전 전주 이병렬 대리의 어머니 천명순 씨의 편지

가족에 대한 고마움은 잊어버리기 쉽다. 매일 보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 말로는 미처 전하지 못했다면 편지로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편지지 위에 나의 진심을 써내려가 보자. 세플러인을 위해 가족이 부친 편지를 소개하는 코너. 언제나 나의 편, 나의 곁에 있어주는, '당신을 생각합니다'.

아들아, 주변의 인정을 받는 멋진 세플러인이 되거라!



평소 <세플러+원>의 열혈독자라고 자처하는 천명순 씨는 설비보전 전주 이병렬 대리의 어머니다.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 <세플러+원>을 보기 시작했다는 그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보가 집 앞에 도착할길 기다린다고. 처음에는 생소한 회사였지만 <세플러+원>을 통해 세플러코리아에 대해 잘 알게 되면서, 이제는 아들이 이곳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럽단다.

이병렬 대리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전남 강진 떨어져 사는 아들 걱정엔 어머니 천명순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아들에게 전화를 건다. 밥은 잘 먹고 지내는지, 어디 아픈 덴 없는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똑같은 것이다.

언제나 보고 싶은 아들이지만 무엇이든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며 오히려 아들을 다독이는 천명순 씨. 아들이 세플러인으로서 오래도록 훌륭한 인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 이제는 혼기가 찬 아들이어서 장가를 갔으면 좋겠다는 어머니 천명순 씨. 아들이 머지 않아 아무진 색시를 데려왔으면 싶다.



소중한 나의 아들아!
 세플러라는 회사에 두지르 튼지도
 벌써 1년이 다가오구나
 회음이 그 곳을 왜 그리 가려고 하는지
 생소했는데 사보를 줘서 알게 해 주어
 세플러 회사의 대문 빛장을 여는
 식객임으로 입어 보았지

메아길이라는 중요한 부분이 만들어 지는
 곳이고 또한 사보를 통해 사원들의
 여가 활동이며 사회봉사 천목도모등이
 성공나고 흥이 있어 사보를 기다리는
 애독자가 되었단다
 더불어 아들이 그런 좋은 회사에 몸 담고
 있어 고맙고 뿌듯 하단다

강기 근무 하신 분들의 손거 각정을
 보며 너도 30년 근속자가 되어서
 회사의 중요한 축의 일원이 되고
 나아가 추배 지도에도 한 몫을 하는
 모범 사원이 되어 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엇을 이루려 할때는 쉬운 것만
 있는것이 아니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배워 연구 노력하여 마침내
 얻을 수 있음이 전리 믿듯 하구나

그리하여 연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세플러인이 되거라
 항상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 하길
 바라며 너를 사랑하는 임이가...



세플러코리아에 근무하고 있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편지'를 받습니다.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손편지로 표현해 보세요. 편지와 함께 가족사진(1~2매)을 보내시면 <당신을 생각합니다>에 소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바삐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자연의 품에서 한가로이 노닐다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의 용현자연휴양림 체험



맨발로 느끼고 가슴으로 마시는 산림욕

숨 돌릴 틈 없는 일상에 치여 잠시 휴식을 위해 떠나고 싶다면 여유로운 자연의 품으로 떠나보자. 이번 '체험 1박2일'에서는 누구보다 바쁘게 달려온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의 사우들을 용현자연휴양림으로 초대했다.

울창한 숲 속, 그 안에 파묻혀 있는 휴양관 앞에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 11명이 도착했다. 상쾌한 공기가 가득한 이곳은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한 용현자연휴양림. 능선사이에 있는 용현계곡 한가운데 자리해 심산유곡(深山幽谷)의 경치를 자랑하는 산림휴양지다. 능선을 따라 연결되는 휴양림의 등산로와 순환임도는 산책과 등산이 용이하고 멀리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해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1박2일 동안 이곳 휴양림에서 자연과 하나 될 영업팀 사우들은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따라 숲 속 탐방에 나섰다. 산림욕을 할 때, 숲 한가운데 가만히 앉아 명상을 하면 자연의 신선한 공기를 보다 섬세하게 느낄 수 있다. 바닥에 편히 앉아 눈을 감은 사우들.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몸 속 깊숙이 들이마시며 심신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잡념으로 가득 찼던 머릿속이 어느새 고요해지고, 마치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이 들었다. 울창한 숲에서 명상 뒤, 이들이 향한 곳은 용현자연휴양림의 이색적인 산림욕 코스인 맨발산책로였다. 두꺼운 밀창이 달린 운동화와 땀에 젖은 양말을 벗고 맨발로 흙을 밟으며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숲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했다. 사우들은 장난스럽게 흙 묻은 발바닥을 짚 내밀어 보였다. 생경한 흙길의 감촉이 활기를 되찾아 준 것 같았다.

이동희 부장, 고진석 부장, 신수일 차장, 신수정 사원, 정혜연 사원, 김홍진 상무, 권영란 사원, 이영호 부장, 김선우 사원, 이혁준 부장, 안희장 부장

얼굴 보기도 힘든 우리 팀에게 찾아온 여유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팀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세플러의 베어링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거래하고 있는 국내 사업체만 해도 50여 군데. 관리하는 업체가 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팀 또한 서울과 창원, 울산으로 사업장이 나뉘어 있다. 일일이 발로 뛰어가며 고객을 상대하는 게 주 업무이다 보니 촘촘히 짜인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의 하루는 바삐 흘러간다. 사우들은 1박2일 동안만은 이곳 자연휴양림에서 잔뜩 긴장했던 마음을 편안히 풀기로 했다. 김선우 사원은 "빡빡하게 짜여진 업무에 슬슬 지쳐갈 무렵이었는데,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연을 누비니 '힐링' 되는 것 같아요."라며 주변 경관을 둘러보았다.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이들이지만, 이날 휴양림에서 휴식을 즐기는 사우들은 서로 매일 봐온 사이처럼 친근해 보였다. 이영호 부장은 "우리 부서에는 세플러코리아에 오래도록 몸담은 사우들이 많아서 서로 잘 알고 있어요. 선배들이 친하게 지내는 만큼 후배들과도 격의 없이 지내고 있죠."라며 화기로운 팀 분위기를 자랑했다. 부서를 총괄하고 있는 김홍진 상무는 "샤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많은 곳에 세플러코리아 제품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널리 발을 뻗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자연을 놀이터 삼아

밀창이 두꺼운 운동화와 땀에 젖은 양말을 벗고 맨발을 땅에 대자, 생경한 흙길의 감촉이 느껴졌다. 발바닥에 흙을 묻혀가며 걸은 길은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숲의 새로운 모습을 마주하게 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여유를 이곳 휴양림에서 되찾은 사우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자연 속을 노닐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동희 부장이 한 그루 나무에 손을 올리고





서서 외치기 시작했다. 어릴 적에 누구라도 한번쯤은 해봤을 놀이에 사우들이 너도나도 합세했다. 술래가 된 이동희 부장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온 사우들이 우스꽝스러운 자세와 표정으로 멈춰 섰다. 계곡에서 가만히 발만 담그고 있기가 아쉬웠는지 김선우 사원이 수증기마전을 제안했다. 장혜연 사원팀과 권영란 사원팀으로 나누어

시작된 기마전에서 양 팀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붙었다. 양 손을 마주잡고 힘겨루기에 들어간 장혜연 사원과 권영란 사원의 승부욕은 웬만한 남자들 못지않았다. 권영란 사원이 재빨리 장혜연 사원의 손목에 둘러진 띠를 풀면서, 계곡에서 벌인 기마전은 마침내 권영란 사원 팀의 승리로 돌아갔다. 자연은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이 된 이들에게도 재미 있는 놀이터가 됐다.



갈증을 날릴 시원한 수박 한 입. 얼굴크기 만하게 잘린 반달 수박을 든 사우들의 표정에는 잔뜩 장난기가 어려 있었다.

먹음직스러운 수박처럼 무르익어가는 우리

숙소 앞 야외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우들 가운데는 큼직한 수박이 놓여있었다. 고진석 부장이 칼로 수박 한가운데를 찌러 넣으니 '찍'하는 소리와 함께 수박이 반으로 갈라졌다. 얼굴크기 만하게 잘린 반달 수박을 한 입 베어 물자, 수박은 달콤한 과즙이 되어 입 안에 녹아내렸다. 수박을 먹다 말고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옆 사람 얼굴에 수박씨를 붙이기 시작한 사우들. 코 옆이며 눈 밑까지 찰싹 붙은 수박씨 점을 보며 서로 참지 못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수박도 시끌벅적하게 먹는 그들이었다. 이동희 부장은 "앞으로는 술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겠어요"라며 부서의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하기로 했다. 먹음직스럽게 익은 수박처럼 사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팀의 1박2일도 점점 무르익어갔다.

청정한 자연 속에서 보낸 사우들은 때 묻지 않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천진했다. 일상에 치여, 잃었던 여유를 휴양림에서 되찾은 사시&악세서리 드라이브 BU 영업의 사우들. 짧지만 길게 느껴진 이날의 여운은 한동안 이어질 듯하다.

+ mini interview



김흥진 상무
트랜스미션&사시시스템 BD장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우리 팀이 모처럼 공기 좋고 물 좋은 휴양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팀원들이 오늘을 계기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열심히 될 기운을 얻어갔으면 합니다.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여름을 말하다

PU HV TRB
Mr. Ramirez, Jesus
&
창원공장 HR Development
이장선 사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곧은 자태.
덧없이 스며드는 햇살과 사이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 속에 실린 청량한 향취.
여름이 무르익을수록 대나무 숲은 더욱 푸르러진다.
전라남도 담양, 뽐뽐하게 우거진 대숲 한가운데
오늘의 주인공 Mr. Ramirez가 서있었다.
대나무의 기운을 온몸으로 느낀
그의 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 시원했다.



여름 햇살 스며드는 대나무 숲에서

질푸른 절개, 대나무는 잘 알려져 있듯 선비의 인품을 비유하는 사군자 가운데 하나다. 선조들은 추운 겨울에도 변치 않는 대나무의 곧은 자태를 일컬어왔지만, 우리 삶에 대나무가 빛을 보는 때는 바로 여름이다. 본래 성질이 찬 대나무는 그 자체로도, 때로는 생활용품이나 음식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나게 한다. 대나무하면 담양을 첫째로 꼽는다. 그중에서도 광범위한 대나무군락을 이루고 있는 죽녹원(竹綠苑)에 가면 울창한 대나무숲길을 거

닐 수 있다. 대숲 속 피서에 대한 설렘을 안고 죽녹원에 도착한 Mr. Ramirez와, 함께하는 동료 이장선 사원.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돌계단을 하나둘 밟고 오르니 정수리를 뜨겁게 태우던 햇빛은 간 데 없고 대나무가 만들어 준 그늘이 더위를 식혀주기 시작했다. 죽녹원에는 여덟 가지 산책로가 나 있다. 죽마고우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철학자의 길 등 길마다 이름과 의미도 다르다. 두 사람은 한해 운수를 좋게 하고, 1년 종을 운수를 10년으로 늘려준다는 운수대통길로 들어섰다. “제 평생 이런 장소는 처음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대나무가 있다니 정말 놀랍네요.” 하늘

높이 솟은 대나무가 뽐뽐하게 들어선 숲길은 굽이굽이 이어지고 있었다. “어쩌면 이렇게 길고 곧게 자랄 수 있는지 신기해요.” 가까이 붙어 대나무를 쓰다듬던 그가 높이 솟은 대나무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니 여름 햇살이 덧없이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품은 대나무의 풋풋한 향취를 깊게 들이마시는 Mr. Ramirez와 이장선 사원. 도시의 오염된 공기에 찌들었던 몸이 깨끗하게 씻기는 기분이다. 대나무 숲 한가운데 있으니 도시에서의 번잡스러움은 잊히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체험마을에서 배운 옛 선조들의 풍류

대나무숲길을 따라 얼마나 발걸음을 옮겼을까. 어느새 좁다란 대나무 길은 끊어지고, 가려졌던 햇빛이 팽하니 쏟아져 내렸다. Mr. Ramirez와 이장선 사원이 도착한 곳은 담양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죽향문화체험마을'. 특히, 면양정, 식영정 등은 담양을 대표하는 다섯 가지 정자를 재현해 아름다운 공원을 이루고 있다. 호젓하게 서있는 정자 앞 햇빛에 반짝이는 연못가를 거닐다 보면 마치 한 폭의 그림 안에 들어와 있는 듯 착각을 일으킨다.

창원공장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Mr. Ramirez는 지난해 12월 세플러멕시코에서 세플러코리아로 귀국을 옮겨왔다. 이곳에 온지 채 일 년이 되지 않았지만, 어릴 적 배운 태권도 덕에 한국이란 나라에 친숙하다고. 창원공장에 머무는 동안 최대한 한국문화에 대해 많이 배워가고 싶다는 그에게 우리 선조들이 즐긴 여름의 풍류를 알려주기로 했다.

옛 선조들은 여름이 시작되는 단옷날에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으며 더위를 대비했다. 하얀 백지선(白紙扇)에 시나 그림을 넣는 것은 풍류를 즐기는 한 방식이기도 했다. 정자에 걸터앉은 두 사람은 이곳 체험마을에서 대나무로 만든 합죽선 위에 난을 쳐보기로 했다. 붓을 쥐고 천천히 난을 그려나가는 Mr. Ramirez, 그 손길이 신중하면서도 거침이 없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하니 그럴듯한 작품이 완성됐다. "사실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내 손으로 만든 결과물이라 뿌듯하네요. 이곳의 전체적인 풍경이 제게 영감을 준 것 같아요. 한국 선조들의 풍류란 참 멋스럽네요. 이참에 저도 한국화를 배워볼까 봐요." Mr. Ramirez는 이장선 사원과 함께 그림 옆에 한글로 이름을 적어 마무리했다. 부채 위에는 죽녹원에서 느꼈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부채 위에 난을 그려 넣은 두 사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평화로운 분위기에 취해 붓을 드니, 그럴듯한 작품이 완성됐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풀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 새들의 지저귀. 정자를 둘러싼 녹음과 더불어 그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소쇄원의 운치를 더한다.

눈과 귀로 즐기는 진정한 휴식

담양은 대나무와 함께 최고라 칭해지는 정원으로 유명하다. 죽녹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한국 정원의 진수라 불리는 '소쇄원(瀟灑園)'이 자리하고 있다. 조선 중종 때 소쇄양산보라는 사람이 자연에 은둔하면서 지은 이곳은 당대 최고의 선비들이 자연 풍광을 감상하던 장소이자 학문을 논하던 곳으로, 500년 가까이 흘러간 세월에도 많은 이들이 발걸음하고 있다. 얼마동안 대숲을 거닐다보니 다리에 피로가 몰려온 두 사람은 소쇄원에 남아있는 두 개의 정자 중 '제월당(霽月堂)'에 잠시 머물기로 했다. 별이 잘 드는 정자에 올라 맨발로 두 다

리를 죽 핀 채 벽에 기대니 이보다 좋은 휴식이 있을까 싶다. 한동안 말없이 정원을 찬찬히 눈에 담던 Mr. Ramirez가 입을 뗐다. "정자를 둘러싼 녹음과 더불어 그 속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까지 소쇄원의 운치를 더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이곳에서 거처하며 독서를 즐겼다니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소쇄원은 눈으로만 즐길 것이 아니라 귀로도 즐기라고 했다. 큰 암반으로 이루어진 계곡과 그 사이를 흘러 떨어지는 물줄기 소리, 풀잎을 스치는 바람 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는 시작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제월당 마루 위에 걸린 시문에는 양산보의 사돈인 김인후가 쓴 <소쇄원 48명>이 걸려있는데, 소쇄원의 곳곳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은 정자의 난간에 의지해

소쇄원의 빼어난 경치 한데 어울려 소쇄정 비록었네
눈을 쳐들면 시원한 바람 불어오고
귀 기울이면 구슬 굴러는 물소리 들려라
-소쇄원 48명 중 제영

담양에서 보낸 한국의 여름, Mr. Ramirez는 어떻게 느꼈을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한국의 자연을 마주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담양에서 보낸 오늘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머물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가슴 속에 담은 담양의 모습은 남은 여름도 시원하게 보내줄 것이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한 삼총사의 푸짐한 우정

품질보증 안산 최홍선 사원

친구는 제2의 자신이자, 곧 인생의 동반자다. 평생을 같이 할 친구가 있는 것만큼 든든한 일이 또 있을까. 품질보증 안산 최홍선 사원이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을 초대했다. 지나온 시간만큼이나 두터운 우정을 자랑했던 세 사람이 모처럼 모여 새로운 추억을 쌓았다.

철없던 학창시절을 함께 한 삼총사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된 이후로 줄곧 우정을 키워가고 있는 세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 통하는 '베스트 프렌드'다. 최홍선 사원에게 조용훈 씨와 김요한 씨는 즐거운 일보다 힘들 때 함께해준 시간이 있기에 친구들은 그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는 방향하던 학창시절에 중심을 잡아준 친구들

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중학생 때의 저는 철이 없고 친구들을 못살게 굴기도 했어요. 그걸 때 이 두 친구가 곁에 있어준 덕분에 마음을 바로잡게 되었죠. 제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주고, 진심으로 제 얘기를 들어주던 친구들이에요. 두 사람이 여러모로 저를 성숙하게 해주었죠." 그동안 쑥스러워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오늘에서야 전하는 그였다.

친구들이 본 최홍선 사원은 어떤 사람일까. 용훈 씨는 그가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깃곳지만, 속은 정말 여리고 착한 친구'라고 설명했다. "홍선이가 진심을 표현하는 데 서툴러서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홍선이의 마음을 잘 알죠."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서로를 지키며 성장해온 세 사람. 그만큼 서로에 대해 속속



'짠'하고 경쾌하게 맥주잔을 부딪치는 세 사람. 그 모습이 의기투합하기 위해 모아 든 삼총사의 검 부림지 않다.



우리,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가끔 직뿔게 굴어도 마음으로는 네 생각 많이 한다, 홍선아~
조용훈 씨

들이 알고 있다. "저희는 홍선이의 볼 꼴, 못 볼 꼴 다 봐왔어요. 숨기고 싶은 '흑역사'를 다 알고 있으니 저희가 입 한 번만 뺨긔하면 이 친구 참 곤란해질 걸요? 하하." 요한 씨의 놀림에 최홍선 사원은 얼른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지만 모이기만 하면 어김없이 학창시절로 돌아간다는 세 사람이다.

푸짐한 백숙과 시원한 맥주로 다진 우정

삼총사가 찾은 곳은 안산 인근에 자리한 오리백숙 집. 더위에 지치기 쉬운 요즘, 오리백숙은 여름을 기운차게 나도록 할 최고의 보양식이다. "홍선이 덕분에 모처럼 셋이 모여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친구 하나는 참 잘 됐네!" 세 사람은 시원하게 트인 야외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그동안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세 사람이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덧 백숙이 넓은 접시에 가득 채워 푸짐하게 담겨 나왔다. 먹음직스러운 백숙 가운데 큰 살점 하나를 집어 최 사원에게 내미는 요한 씨. "자, 홍선아 내가 먹여줄게. 아~" "내 것도 먹어! 아~" 옆에 있던 용훈 씨도 질세라 거들었다. 장난기 담긴 배려 덕분에 최홍선 사원의 볼이 터질 듯 뺨뺨해졌다. "친구들을 초대하는 자리인데, 제가 주인공이 된 기분이에요." 영양만점 오리백숙과 함께 더운 여름을 나는 데 빠질 수 없는 시원한 맥주도 곁들였다. '짠'하고 경쾌하게 맥주잔을 부딪치는 세 사람. 그 모습이 의기투합하기 위해 모아 든 삼총사의 검 부림지 않다.

"우리 오늘을 기념할 겸 사진 한 장 찍을까?" 최홍선 사원이 꺼내 든 핸드폰 앞으로 세 사람이 옹기종기 머리를 모았다. 익살스러운 표정에 감쪽한 브이까지 삼총사의 추억에 또 한 장이 새롭게 쌓였다. 푸짐한 백숙과 시원한 맥주로 함께한 오늘, 세 사람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늘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마워,
우리 삼총사 앞으로는 아니,
평생 친구로 남자!
품질보증 안산 최홍선 사원

친구야, 생각하면 언제든 불러,
우리 모이면 철없이 놀던
학창시절처럼 재미있으니까,
오늘처럼 늘 셋이 함께하자.
김요한 씨



디트로이트모터쇼를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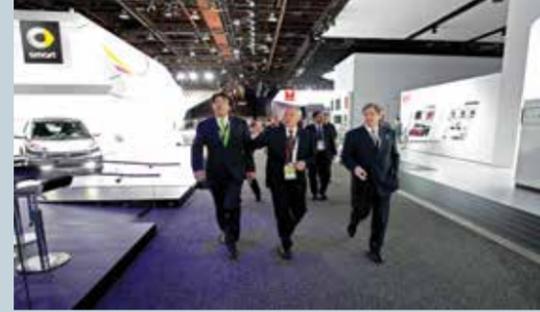
2015년 1월 12일에 시작된 디트로이트모터쇼(NAIAS,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가 14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디트로이트모터쇼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 도시인 디트로이트의 코보(Cobo) 전시센터에서 매년 1월에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로 프랑크푸르트모터쇼, 제네바모터쇼, 파리모터쇼, 도쿄모터쇼와 함께 세계 5대 모터쇼로 꼽히고 있다.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7세대 골프차량

한 해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를 읽는다

1907년 북미 시장에 초점을 맞춰 시작된 디트로이트모터쇼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등을 제외하고는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등으로 국제 정세가 날카로웠던 1941년부터 1953년까지는 미국 정부에서 새로운 승용차 및 트럭의 판매를 금지시켰고, 이후 재개된 모터쇼는 몇 군데 도시를 옮겨 다니며 열리다가 1965년부터 디트로이트로 고정됐다. 1957년부터 재규어, 벤츠, 포르쉐, 볼보 등 해외 업체들이 참가하기 시작하며 국제 모터쇼로 격상되었고 1989년부터 지금의 '북미 국제 오토쇼'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대외적으로는 디트로이트모터쇼라는 이름으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매년 열리는 세계 5대 모터쇼 중 가장 빠른 1월에 열리는 디트로이트모터쇼는 한 해의 자동차 트렌드를 읽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왼쪽부터) 클라우스 로젠펠트(세플러 그룹 CEO), 브루스웬볼드(세플러USA CEO), 게오르크 세플러(세플러 그룹 회장)가 디트로이트모터쇼의 자동차 부스들을 둘러보고 있다.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이 신기술 관련 프레젠테이션을 전해 듣고,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북미 올해의 차

디트로이트모터쇼는 매년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동차 기자의 공정한 투표를 거쳐 그해 가장 뛰어난 차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인 '북미 올해의 차'를 수여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의 대형 세단인 제네시스 1세대가 뽑히기도 했다. 2015년 북미 올해의 차의 최종 후보 3개 차종에도 포드 머스탱, 폭스바겐 골프와 함께 현대자동차 제네시스가 후보에 올랐으나, 폭스바겐의 베스트셀러인 골프가 북미 올

해의 차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폭스바겐의 골프는 7세대 모델로 폭스바겐의 차세대MQB(Modular Transverse Matrix 가로배치엔진용 생산모듈) 플랫폼에서 생산된 차로, 직전 세대 대비 100kg가량 무게를 낮추고 첨단 기술 등을 더했다는 평이다.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도 새해 출시하는 신차를 디트로이트모터쇼에서 자주 발표하며, 올해에는 일반 차량 55대(북미 메이커 6대, 세계 메이커 49대), 컨셉카 7대가 참가했고, 8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 성황을 이루었다.

디트로이트쇼에서 만난 세플러의 기술

세플러노스아메리카(North America)는 디트로이트모터쇼의 공식 스폰서로, 별도의 부스 운영 없이 행사장 내 마련된 약 280평 규모의 별도 전시공간에서 주요 고객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디트로이트모터쇼에 참가했으며, 지역 내 대학교의 공학계열 졸업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채용설명회도 이곳에서 함께 진행했다. 기자 간담회에는 미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5,000명 이상의 기자가 참석하여 엔진, 트랜스미션, 사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세플러의 신기술들을 돌아보았다.

'미래를 위한 움직임(Mobility for Tomorrow)'이란 테마에 맞추어 세플러 USA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제2단계 48볼트(volt) 하이브리드 SUV 컨셉 차량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컨셉 차량은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CAFE* 2025년 기준에 부합하며, 영구적인 스타터, 4륜구동 분리 클러치, 열관리모듈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댐핑이나 마찰을 저감시킨 드라이브 트레인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도 적용되었다. 이외에도 파워트레인 모형을 통해 세플러의 신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볼 수 있게 했고, 레이싱 팬들을 위해 전기 포뮬러 차량도 전시했다.

* 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자동차 메이커별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정한 미국의 연비규제법으로 2025년에는 차량 연비 기준을 54.5mpg(23km/L)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프로젝트명 CAFE 2025인 세플러의 SUV컨셉트 차량으로 이미 2025년 CAFE의 연비 규정을 충족시킨 모델이다.



세플러 별도 전시공간에 마련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던 전기 포뮬러레이싱 차량

태풍처럼 휘몰아치는 강력한 슛으로 우승을 노린다! '허리케인'

서울사무소 축구동호회

해질 무렵, 도심 속 건물 옥상에 위치한 한 풋살장에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남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정장 대신 운동복을 입고, 구두 대신 축구화로 갈아 신은 이들은 이번 해피투게더의 주인공, 서울사무소 축구동호회 '허리케인'이다.



①이승민 사원 ②최승목 부장 ③임주혁 사원 ④최태영 인턴 ⑤장용건 사원 ⑥임승준 사원 ⑦이병호 차장 ⑧최진선 사원 ⑨김지용 사원 ⑩한상열 대리 ⑪이종우 차장 ⑫최찬길 사원 ⑬김민건 대리



수차례 실패 끝에 마침내 훌라후프를 통과한 마지막 슛. 함께 한 응원이 없었다면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축구동호회

1995년 가을에 창립된 축구동호회 '허리케인'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서울사무소 근무자의 3분의 2에 달하는 100여 명이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다. 비록 모든 동호회원이 한자리에 다 모이기는 어렵지만, 분기별로 연습 및 모임을 가지며 꾸준히 친목도모를 하고 있다. 축구가 격렬한 운동이니 만큼 연습은 젊은 사우들 위주로 이루어지지만, 오랜 시간 '허리케인'을 이끌어 온 임원들 또한 모임에 참여해 동호회에 대한 애정을 이어가고 있다. '허리케인'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박현성 대리는 "선배님들의 열정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 온 '허리케인'이 <세플러+원>에 소개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 '허리케인'은 특히, 신입사원에게 다른 부서의 동기와 멀게만 느껴졌던 선배들과도 같이 땀 흘리며 가까워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라며 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유했다.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날린 짜릿한 슛

하루 업무를 마치고 회원들이 모인 풋살장에는 동호회 창립 20주년 맞아 새로 맞춘 유니폼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얀 바탕에 여객 위에는 세플러를 상징하는 초록색 띠가 둘러진 새 유니폼을 입으니 오늘은 왠지 경기가 잘 풀릴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긴다. '허리케인'에게 주어진 미션은 '골대에 매달린 훌라후프에 골인하기'. 미션을 성공하면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공식사용구였던 스타 플라리스가 상품으로 주어진다. 미션에 임하기 전 축구화 끈을 질끈 묶는 회원들. 그 모습이 제법 비장하다. 어느덧 해는 누엣누엣 저물어가고, 공기가 서늘하게 가라앉기 시작한 가운데 '허리케인'의 회원들이 힘차게 "도전"을 외쳤다. 차례로 줄 서 가며 힘차게 훌라후프를 향해 공을 차기 시작한 회원들.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던 미션이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다. 순서가 몇 바퀴째 돌아가면서 서서히 맥이 빠질 무렵, '팡'하고 김민건 대리의 발에 맞아 날아간 축구공이 마침내 훌라후프를 통과했다. "대리님 정말 멋진 슛이었어요!"





두 팔 벌려 달려며 기쁨의 세리모니를 하는 김민건 대리 뒤로 다른 회원들이 달려와 환호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함께 응원했기에 그 기운이 전달된 것 같아요. 서로 협력하면 불가능이란 없겠죠."

최고의 축구동호회가 되는 그날까지

축구동호회는 각 사업장에 걸쳐 여럿 존재하고 있기에, '허리케인'은 앞으로 세플러코리아의 모든 사업장을 모아 교류전을 할 계획이 있다고, 축구를 통해 사업장 간에 상호 친밀도도 높이고, 업무 면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타사 축구동호회와 친선 경기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들이 추후 정기적인 경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함께 즐긴 땀방울만큼 선후배 간 사이는 더욱 두터워진다. 회사생활을 더욱 즐겁고 뜻 깊게 보내고 싶다면 이제부터 축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허리케인'의 회장인 최승묵 부장은 "우리 동호회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이에요. 설사 축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해도 좋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허리케인'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라며 소감을 남겼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회원 수만큼 실력도 키우고 있는 '허리케인'. '허리케인' 가입은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기는 동시에 끈끈한 동료들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세플러코리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축구동호회가 되는 그날까지 '허리케인'은 오늘도 힘차게 공을 찬다.



+ mini interview



임주혁 사원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오늘 주어진 미션은 꽤 이색적이었습니다. 미션을 통해 우리 실력도 한뼘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들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축구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상품으로 받은 축구공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다가올 친선 경기에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허리케인' 파이팅!



For Life



여름 불청객, 지긋지긋한 발 냄새, 무좀 퇴치법

여름이면 신발 속에 흥건히 차는 땀 때문에 특히 신경 쓰이는 발 냄새와 무좀! 신발 벗는 게 두려워 식당에 들어가면 테이블자리만 찾고, 씻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을까 무좀의 '무'자도 꺼내지 못한 채 가려운 발가락만 꼬지락거립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여름철 불청객인 발 냄새와 무좀을 퇴치해봅시다.

발 냄새, 무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무좀은 덥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 곰팡이균에 의해 생깁니다. 구두와 양말을 신고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인 요즘, 통풍이 되지 않아 땀에 젖은 발은 무좀에 걸리기 쉽습니다. 땀으로 신발 안쪽이 습기에 젖으면 발의 각질이 붙어납니다. 이때 세균이 땀에 붙어난 각질을 분해 하면서 악취가 나는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발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쾌적한 발 상태, 이렇게 유지하세요

- ①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보송보송하게 물기를 말려주세요
수건을 이용해 물기를 제거한 후, 드라이기 바람을 쐬어주면 발가락 틈까지 완벽하게 물기를 제거 할 수 있습니다. 씻은 후, 발가락 사이사이에 파우더를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② 면양말을 여러 켤레 준비해 자주 갈아 신으세요
땀을 잘 흡수하는 면양말과 발가락 사이의 짓무름을 예방하는 발가락 양말을 하루에 두세 켤레 갈아 신어 발의 습도를 조절하세요. 쾌적한 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① 무좀을 예방하는 패치를 붙여보세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다 보면 통풍이 어렵습니다. 약국에서 구입 할 수 있는 무좀 패치를 발가락 사이와 발바닥에 붙여 발의 냄새와 가려움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② 신발에 항진균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신발을 신고 다녀온 후에는 신발 속이 습해지지 않도록 신발 전용 습기제거제나 항균 스프레이 등을 뿌려 신발을 보관합니다.
- ③ 식초나 마늘 민간요법에 의존하면 안돼요
식초에 발을 담그거나 빨은 마늘을 피부에 바르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입니다. 잘못된 무좀 예방법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세균감염으로 염증을 일으켜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소담소담, 가족과 함께 있어 더욱 시원한 여름나기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합형석 부장

장맛비 소식에 걱정도 잠시,
뜨거운 태양이
합형석 부장의 가족을 맞았다.
비온 다음날의 상쾌한 풀내음과
투명하게 맑은 물이
축제 현장을 설레게 만들었다.
더위를 잊은 듯 물장구치는
가족들의 모습이 정겨운
〈물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의
축제 현장 속으로 안내한다.



양평 수미마을에서의 특별한 하루

여름방학이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물놀이이다. 최근엔 날씨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가 인기라지만, 건강을 위해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물놀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물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는 여름 축제의 대표로 자리매김한지 올해로 세 번째다. 양평의 깨끗한 자연 환경에 둘러싸여 메기사냥을 비롯해 물놀이를 즐기는 것은 특히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초여름의 피약별도 잊게 만드는 시원한 남한강이 오늘의 주인공인 합형석 부장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합형석 부장과 아내 윤경남 씨, 아들 재민이와 딸 채현이가 함께했다. “이전에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종종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매년 가족여행을 계획했다는 합형석 부장 부부. 아이들이 크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며 아쉬워하는 합형석 부장이었다. 그렇기에 오늘 축제는 더욱 의미가 남달랐을지도 모른다.



힘찬 메기의 꼬리짓으로 더위를 날리자!

“아빠, 진짜 손으로 메기를 잡는 거야?” 본격적인 메기사냥 체험에 앞서 딸 채현이가 한껏 들뜬 눈치였다. 사교성이 좋은 채현이는 가족들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묵묵히 메기사냥 도구를 챙기던 재민이도 팔을 걷어붙이고 물에 침범침범 뛰어들었다. 먼저 축제에 참여한 많은 가족들은 메기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메기들이 바위 틈새로 재빨리 숨어버리는가 하면, 잡힐세라 힘찬 꼬리짓으로 손을 빠져나가 버리기 일쑤였다. 그러다가도 메기를 잡을 때면 사방에서 “잡았다!” 소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드디어 함형석 부장의 손에 메기 한 마리가 잡혔다. 재빨리 양동이에 넣기도 전에 메기는 빠른 몸부림으로 손끝을 빠져나가 바위 틈새로 몸을 숨기기 바빴다. 아쉬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족대를 휘휘 저었다. “아빠가 더 큰 걸로 잡아줄게.” 아빠를 도와주기 위해 재민이도 허리를 숙이고 메기를 찾는 그때, “잡았다!”며 재민이가 외쳤다. 작은 손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메기를 또 한번 놓칠세라 조심스레 움켜잡았다. 메기를 직접 맨손으로 만져본 적이 없어 처음에는 지레 겁을 먹었던 아이이지만 어느새 제법 메기와 친해져 있었다.

모락모락 고소함이 피어나는 가족애

깨끗하고 맑은 물속에서 발을 떼기 어려웠다. 어느새 시작된 가족 물총싸움. 각자 물총에 물을 담아 서로를 향해 물총을 겨누면서 연신 물줄기를 뿜어댔다. 가족 모두 물총에 맞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면서 온몸이 젖었지만 웃음소리는 끊이지가 않았다. “아빠랑 엄마와 물놀이할 기회가 적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재민이와 채현이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가 머물렀다. 서로의 젖은 몸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오늘의 추억을 다시 떠올리는 듯했다.

“오늘 물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어요. 특히 아빠와 했던 물총싸움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빠 얼굴에 물총을 쏘기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여름휴가 때 아빠와 또 물놀이 하고 싶어요.”



결혼하고서 이렇게 따뜻한 손을 잡은 것도 오랜만이에요. 항상 옆에서 의지할 수 있어서 든든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 Tip

물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

올해 <물맑은 양평메기수염축제>는 5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95일간 양평 수미마을에서 열린다. 양평군의 후원을 받는 이 축제는 메기사냥을 비롯해 미꾸라지 사냥, 황토 체험, 수중 생태탐험, 갈대숲 탐방 등 가족이 신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축제는 자유이용권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마다 이용요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 0505.505.1114
주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곱다니길 55 (봉상리 531) 수미마을 일원
홈페이지 : summerfestival.kr

마을 한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다. 아까 잡은 메기들을 손질해 굽고 있었던 것. 함형석 부장의 가족이 잡은 메기들도 먹기 좋게 손질을 마쳤다. 배고픈 가족을 위해 함형석 부장과 재민이가 큰 집게를 들고 불 앞에 나섰다. 고소한 냄새와 함께 어느덧 메기가 익어갔다. “오늘 어땠어?” 메기가 구워지는 20분 동안, 가족은 동그랗게 둘러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본다. 하얀 속살을 드러낸 메기의 살을 발라 서로의 입에 넣어 주었다. 아마도 가족들은 입안 가득히 사르르 녹는 메기의 고소한 맛과 함께 오늘을 추억할 것이다.

소통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더하려는 아빠의 마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똑바른 선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함형석 부장. 그 역할의 몫은 자신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욱 엄한 아버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젠 친구같이 편안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려고 노력해야죠.” 주말에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1년에 한 번씩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는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여름휴가는 서울로 부임하여 이전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또 한 번 근교의 시원한 계곡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물맑은 양평메기축제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어요.” 축제를 위해 양평에 처음 왔다는 함형석 부장은 서울과의 접근성, 깨끗한 자연, 아름다운 경관에 매료되었다고. 이 모든 것이 가족과 함께하기에 더욱 의미 깊다고 말을 더한다. 더위를 잊게 했던 시원한 물살만큼이나 유쾌하고 즐거운 가족이었다.

말 많고 탈 많은 ‘김영란법’, 도대체 뭘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개

금번호에서는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수많은 논란과 진통을 겪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만든 법안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접대가 만연한 사회의 부조리함을 없애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지난 3월 3일 국회를 통과해, 3월 27일에 공포,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개인이나 회사의 관점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일상 속 법률 상식, ‘Law school of Schaeffler’ 코너를 통해 배워보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가상의 사례를 통해 사소하지만 어려운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공직자 등 배우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사례 Q1

어느 날 대학병원 의사, 사립학교 이사장, 기자, 세플러코리아에 다니는 A, 대학 동창생 4명이 함께 골프를 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했다. A는 골프 및 식사비용 200만 원을 모두 혼자 계산했다.



A1 골프를 함께 친 네 명 중 A를 제외한 3명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언론사와 사립학교 종사자들까지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음식물과 주류, 골프,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을 모두 수수 금지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4명이 모두 같은 멤버, 같은 비용으로 1년에 골프를 7번 (1명당 50만 원×7회) 쳤다면 A로부터 각각 350만 원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결국, 4명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례

Q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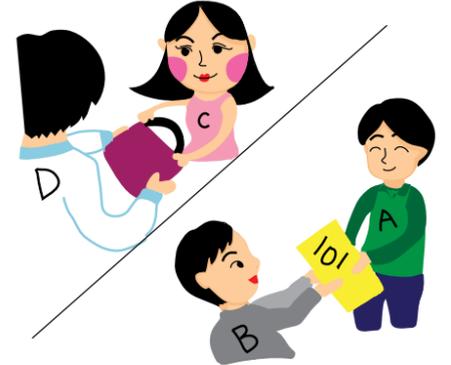
세플러코리아에 다니는 A는 회사 관할 구청 직원에게 매년 명절 선물을 보내고 있다.



A3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향후 정해질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의 범위를 ‘금전·유가증권·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이익 및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그리고 채무변제·취업제공·이권부여 등 광범위한 유·무형의 경제적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금지할 경우 사회적 혼선이 가중될 염려가 있어 7가지 예외 사유를 적시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이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식사 접대는 3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명절 선물이 향후 제정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액을 초과하면서 형사처벌의 잣대인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직무 관련성 유무를 따져 금품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 Q2

세플러안산에 다니는 A는 공기업 간부인 매형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10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매형의 며느리 C는 시아버님의 직무와 관련된 단체의 직원인 D에게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을 선물로 받았다.



A2 청탁금지법은 가족의 적용 대상을 원안의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서 크게 후퇴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기업 간부의 처남인 세플러안산의 A 및 공기업 간부의 며느리인 C 모두 금품과 상관없이 청탁금지법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선물이라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현행 형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례

Q4

세플러안산에 재직 중인 A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자 해당 학교의 교수인 친구 B에게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A4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정청탁 금지 위반의 유형에 해당한다. 돈을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유형을 15가지로 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공직자의 채용, 승진 등 인사 및 학교의 입학, 성적 등 학생의 평가에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후쿠오카에서 처음 만난 일본

품질보증 창원 손강우 사원



01

여행은 언제나 묵은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일상의 활력을 찾아주는 것 같다. 지난 4월엔 품질보증 테이퍼베어링 MU에 근무중인 최한호 과장과, 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생 창욱이, 이렇게 셋이 함께 일상의 활력을 찾아 1박2일로 후쿠오카를 다녀왔다. 우리 부산항을 떠나 쾌속정 코비를 타고 후쿠오카로 향했다. 푸른 바다를 보는 것에서부터 여행길의 시작이었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가본 일본 여행은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결과 속이 다르다는 일본 사람들에 대한 주변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어디를 가더라도 그 친절함 미소와 행동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했다.

지진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시내임에도 불구하고, 키 작은 건물, 미니어처 같은 작은 자동차들과 함께 그에 못지 않은 좁은 도로가 인상적이었다. 키 작은 건물들 덕분에 여행하는 동안 하늘이 잘 보여 좋았고, 시내라는 느낌보다는 평온한 작은 마을에 있는 느낌이었다. 도심 중심부에 이르러서는 이곳이 대도시임을 짐작할 수 있는 건물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후쿠오카는 일본 규슈 지방 후쿠오카현의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로, 직접 와보니 기후나 도시 분위기가 부산과 비슷한 면도 많았다. 대도시이면서 풍부한 자연 환경으로 바다와 산이 있고, 도시의 떠들썩함 속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었다.

후쿠오카에 도착해서 호텔로 이동하기 전, 후쿠오카의 명물 중 하나인 야후돔에 먼저 들렀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셋 다 이곳은 꼭 가보라며 다짐했던 곳이었다. 우리는 후쿠오카의 또 다른 중심부인 텐진을 지나 야후돔까지 버스로 이동했다. 버스 안내방송에서 “야후 도오무~”라는 안내방송과 함께 버스에서 내리자, 저 멀리에 있는 웅장한 야후돔의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야후돔은 3만 8천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잠실, 사직, 문학 구장의 수용 인원이 2만 5천~2만 8천 명 정도라고 하니 야후돔의 크기가 짐작이 될 것이다. 우리가 후쿠오카에 도착한 날은 홈 팀인 소프트뱅크 호크스와 세이부 라이온즈의 경기



02



03

- 01. 코비쾌속정에서 최한호 과장(우측)과 함께
- 02. 캐널시티
- 03. 후쿠오카타워
- 04. 오힌리 공원
- 05. 요도바시 전자상가

가 있었다. 우리 외야석에 자리잡고 앉아 홈 팀인 소프트뱅크를 응원하며 야구를 관람했다. 야구 경기를 모두 관람하기엔 시간이 많지 않아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캐널시티로 발걸음을 돌렸다. 하카타강 옆에 있는 캐널시티는 다양한 어뮤즈먼트 시설과 쇼핑물, 그리고 복합 예술 공간을 갖춘 곳으로 후쿠오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복합 패션타운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캐널시티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고 분수쇼를 보며 커피 한잔의 여유도 즐겼다. 주말 저녁이라 그런지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과 사귀지 얼마 되지 않은 듯 아작은 어색해 보이는 연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다. 라면과 초밥 그리고 꼬치의 본고장에 걸맞게 한국에서도 먹어 볼 수 있지만 일본에

왔으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꼬치와 함께 사케 한잔을 즐기고 첫날을 마무리했다. 둘째 날은 오힌리 공원과 모모치해변 후쿠오카 타워 등 후쿠오카의 명소들을 둘러 보았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후쿠오카 여행을 계획하면서 야후돔과 함께 가장 가고 싶었던 곳. 남자들의 쇼핑 명소인 요도바시 전자상가였다. 이곳에서 사고 싶었던 카메라와 노트북을 구경하고, 즐거운 쇼핑을 즐겼다. 쇼핑을 마치고, 일정의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스모 경기장. 이곳에서 스모가 일본 사람들이 프로야구와 더불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임을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 TV에서나 가끔 보던 생소한 스모 경기를 처음으로 본 터라 조금 어색했

지만, 한판에 끝나는 스모 경기는 생각보다 속도감도 있고 흥미로웠다. 스모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씨름 경기는 왜 이렇게 사양길에 접어들었을까 하고 의문이 들 정도로 재미난 경기였다. 부산항에서 후쿠오카까지 쾌속정을 타고 걸린 시간은 3시간. 이곳에 도착해 주말을 이용해 이틀을 꼬박 즐기고 떠나오기에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첫날밤 숙소에서 셋이 함께 마셨던 맥주도 그리워지는 시점이다. 짧은 일정으로 바쁘게 이곳 저곳 다니며 즐긴 여행이라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후쿠오카, 다음에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셋이 함께 꼭 다시 한번 찾고 싶다.



04



05

거장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된다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전주 김기원 사원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은 허영만의 40년 만화 인생을 압축해 놓은 요약본과 같다. 만화가 여가활동이라는 시대적 인식을 뛰어넘어 이제는 문화와 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허영만이라는 인물의 동행이 큰 몫을 차지했다. 만화를 위한, 만화에 의한 인생을 담은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을 김기원 사원이 안내한다.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열정

전시회장 입구 벽면을 크게 장식한 〈허영만展 창작의 비밀〉의 포스터에는 〈날아라 슈퍼보드〉, 〈각시탈〉, 〈타짜〉 등 친숙한 등장인물들이 허영만을 둘러싸고 있다. 허영만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의 작품 하나쯤은 모르는 이 없을 만큼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허영만은 무려 총 215편의 작품을 탄생시켰다. 책장을 가득 채울 만한 그의 작품들 중 500여 점이 선별되어 이번 전시가 꾸며졌다.

전시회는 허영만이 40년간 출간했던 모든 책들을 연보별로 진열한 '연보존' 전시실과 허영만의 일과표와 일상 사진, 화실 사진을 전시하여 작가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서술한 '더 깊은 이야기' 전시실 등 열한 가지의 테마로 나누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몸소 체험하는 느낌이 들게 했다. 그 중 손바닥보다 작은 원화를 전지 크기만큼 확대하여 전시한 'Grand Brush' 전시실의 〈오늘은 마요일〉 한 컷에서 김기원 사원의 발길이 오래 머물렀다. 〈오늘은 마요일〉 한 컷인 기수들이 말을 모는 장면에는 말발굽에 모래먼지가 뿌연게 이는 모습까지 밀도 있게 표현되었다. 그뿐일까 〈미스터Q〉에서 주인공 이강토가 사무실에서 팔을 괴고 있는 장면에는 살짝 열린 책상 서랍이나, 메모지의 끝까지 세세하게 표현되었다. "만화책 한 쪽에서도 한 컷인 아주 작은 그림을 확대한 것인데 깨짐이 없는 것을 보니 작은 컷에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갔는지 가능



+ mini interview

사물에 대한 관심과 기록,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이 '창작의 비밀'이 아닐까요. 허영만 작가의 작품을 보면서 작은 컷에 깃든 열정과 노력에 감탄했습니다. 전시회는 딱딱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릴 수 있었고, 허영만 작가의 시간과 노력의 결과물은 제게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주 작거나, 시선이 가지 않는 부분까지 한 컷 한 컷 신경을 기울인 허영만 작가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만화의, 만화를 위한, 만화에 의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대가의 삶은 어떨지 궁금해한다. 허영만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소재와 영감을 얻는지 등의 궁금증을 풀어줄 '더 깊은 이야기' 전시실로 발걸음을 옮긴 김기원 사원은 허영만 삶 속의 깊은 이야기를 들여다 보았다. 빠곡한 메모와 명언으로 가득한 화실, 현장 취재 사진들에서 프로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작가의 일상 사진들과 일에 집중하느라 자식과 보낸 시간이 없음을 아쉬워하는 글귀에서 허영만 작가 또한 우리네 아버지들과 같은 한 집안의 가장임을 느낄

수 있다. "허영만 작가의 일대기를 숫자로 요약한 전시물을 보면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는 열정이, 90세가 될 때까지도 현역으로 남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전해져 제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허영만의 열정은 전시된 일대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붙여놓은 그의 메모와 전국을 돌며 모아놓은 방대한 양의 취재노트에 그대로 묻어있다. 하나의 소재를 이야기에 풀어내기 위해 전국을 돌며 치열하게 수집해온 자료가 전시실 벽면에 빼곡하게 전시되어 거장의 작품이 절대로 세상에 쉽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뜨거운 열정이 안내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온 허영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김기원 사원에게 이번 전시회는 자신의 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되묻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오늘은 마요일



샐러리맨들의 지침서라 불렸던 작품으로 만년 대리인 주인공의 경마실력을 인생사와 절묘하게 조화시켜 구체적인 직업의 세계를 현미경으로 보는 듯 묘사했다.

식객



먹거리와 연결된 우리의 삶을 4년간의 구상과 약 2년 동안의 치열한 취재로 그려낸 허영만의 수고와 담긴 작품이다. 위의 그림은 김기원 사원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 컷이다.

날아라 슈퍼보드



중국 고전 〈서유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애니메이션 대 표작이다.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시청률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인공신체 ‘입은 듯 안 입은 듯’ 착용형에서 일체형으로 진일보

‘2014 피파(FIFA)브라질 월드컵’ 키오프 행사에선 하반신 마비 환자가 로봇 슈트를 착용한 채 월드컵 시축 행사를 해 전세계 이목을 끌었다. 인간의 몸이 기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바이프로 인공신체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인공신체’란 간단히 말해 신체의 중요한 기능들을 인공적인 장비로 대체함을 뜻한다. 장애를 뛰어넘는 것 이상으로 인간을 넘어선 인류, 이른바 ‘포스트휴먼(Post-Human, 인간이후)’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첨단 과학기술과 만나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이를 세대로 살펴봤다.



영화 <엠티 오브 투모로우>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일본의 'HAL'



오스트리아 빈 의과대학팀의 인공 손

영화에 등장한 인공신체, 옷처럼 입는다

공상과학(SF)영화나 TV드라마에선 현실성이 강조되면서 언뜻 봐도 매우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 인공신체 장비가 등장한다. 할리우드 명배우 톰 크루즈가 주연한 <엠티 오브 투모로우>에선 외계종족과의 전투에서 미사일런처 등의 무기가 장착된 무게 50kg의 육중한 전투 슈트가 나온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전투 슈트를 입고, 어깨 뒤에서 로켓런처가 나와 발사되거나 달리는 차량을 내리쳐차를 멈추는 등 평범한 인간은 불가능한 액션을 소화해낸다. 이처럼 기기를 옷처럼 착용하는 ‘웨어러블(wearable) 인공신체’를 1세대로 분류한다.

입은 인공신체의 시작은 지난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C버클리 대학이 하체에 착용할 수 있는 군사용 ‘블릭스(BLEEX)’를 개발한 것이 최초의 시도였다. 무게 80kg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도 사람이 느끼는 체감 무게는 2kg 정도이다. 국내에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한 ‘하이퍼(HYPER)’가 있다. 인체 신호를 기반으로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작동시켜 다리 근력을 보조하고 증강시킨다. 하이퍼를 착용하면 40kg에 가까운 짐을 6~8kg 정도의 무게로 들 수 있다. 이밖에도 일본은 오랜 문제인 인구 노령화를 해결할 열쇠로 무거운 짐을 들어 줄 인공신체를 개발·상용화하는 등 많은 국가가 인공신체가 사회에 가져올 영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진짜 같이 자연스럽게

지난 1970년대, 당대 최고 인기를 누렸던 TV 드라마 <600만불의 사나이>와 <소머즈>에도 인공신체가 등장한다. <600만불의 사나이>에서 우주비행사로 등장한 주인공 스티브 오스틴(리 메이저스)은 훈련 도중 사고로 잃은 양 다리와 한쪽 팔, 한쪽 눈을 인공 신체로 대체해 새 인생을 살게 된다. 두 다리는 시속 6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고, 시력은 6.0 정도로 몇 백 미터 밖에서도 적의 동태를 살필 수 있다. <소머즈>의 주인공 제이미 소머즈(린제이 와그너) 역시 사고로 잃은 신체 일부를 인공신체로 대체했는데, 특히 1km 밖에서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청력이 그의 주특기였다. 당시는 컴퓨터그래픽(CG) 기술의 한계로 인공신체를 갖게 된 주인공의 외양 자체는 매우 평

범했다. 때문에 뛰거나 던지는 가공할만한 능력을 발휘하는 장면에선 시각적 효과보다 음향 효과에 크게 기대야만 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600만불의 사나이>와 <소머즈>처럼 신체와 같은 외형의 자연스러운 인공신체가 미래형에 가장 근접한 인공신체라 평가한다.

최근 인공신체와 관련해 연이은 R&D 성과를 살펴보면, 입는 형식의 디자인·개발 패턴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대신 마치 신체 일부와 같은 ‘일체형’으로 진일보해 가는 추세다. 무엇보다 영화 속 주인공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기 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내 몸 같은 인공신체, 즉 2세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한 예로, 오스트리아 빈의 한 의과대학팀은 실제와 유사한 감각을 유발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의족과 의수를 개발한 바 있다.



흔적조차 없어 감쪽같은

최근 인공신체의 연구는 실제 피부처럼 ‘감쪽같은’ 일체형 개발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금속 물질이 그대로 드러난 인공신체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는 이용자의 사회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SF영화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에는 캐릭터 중 호크아이가 전투 중에 치명상을 입는 장면이 나온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를 치료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은 인공피부. 보기에 진짜 피부와 똑같이 치료한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다친 신체 부위의 출혈을 막고 회복 속도를 앞당겨, 호크아이는 다른 멤버들과 함께 지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신체에 동화되어 정말 감쪽같은 인공신체,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예스(YES)’다. 서울대 화학생명공학부 김대형 교수는 사람 피부처럼 부드럽고 신축성 있으며, 온도와

습도, 촉감까지 느낄 수 있는 ‘스마트 인공피부’를 개발했다. 인공피부에 내장된 센서들은 물체 등의 온도와 습도,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측정하고 피부가 늘어나는 정도도 감지할 수 있다. 또 손목을 구부리거나 주먹을 쥘 때, 악수를 할 때 등 피부가 30% 늘어나도 센서들이 정상 작동한다. 김 교수는 “뇌 신호로 작동하면서 외부 자극을 실제 피부처럼 느끼고 반응하는 인공피부를 가진 인공기관 제작이 수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장애인을 위한 인공신체 개발이 자칫 오남용 될 경우, 범죄에 악용되는 등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때문에 인공신체 개발과 함께 관련 법·규제 마련의 필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인공신체는 불로장생을 꿈꿔 왔던 인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다만, 과거에는 꿈이었던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를 뿐이다.



서울대공대가 선보인 스마트 인공피부를 늘린 모습



서울대공대가 선보인 표면을 스마트 인공피부로 만든 인공손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가르는 카약

푸른 홍천강을 미끄러지듯 누비다

기다란 '패들(paddle·노)'을 물속에 넣어 천천히 젓는다. 얇게 포를 뜨듯 물살을 가르며 나아가는 카약 위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땅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 옛사람들이 호젓하게 노를 저으며 풍류를 즐겼듯이 카약을 타고 사람의 발길로는 닿기 힘든 강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여유를 느껴본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나아가는 카약을 타고 물 위를 흐르다보면 수심이 얇은 곳에서는 배 밑으로 스치듯 미끄러지는 바위의 촉감을 느낄 수 있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의 경사면을 타고 내려와 급물살을 타고 급류를 뚫는 짜릿함도 맛볼 수도 있다.

수심이 낮고 강 유역이 넓어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붐비는 홍천강은 카약의 명소로도 유명하다. 홍천강변의 다양한 카약 코스 중 마곡리에서 배바위까지 노를 젓는다. 약 2.5km의 거리로 약 1시간 코스이다. 홍천강은 비교적 유속이 느리고 수온이 따뜻해 초보자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패들링만 익히면 카약을 타고 금세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를 수 있다.

강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카약을 타고서 만난 홍천강의 풍경은 특별하다. 패들을 짝 친 손에 힘을 살짝 빼고 주변을 둘러본다. 장락산맥의 산줄기에 겹겹이 쌓인 녹음과 주변을 휘감은 홍천강의 푸름이 무더위를 한걸음 주춤 물러가게 한다. 강을 따라 노를 저어 가다보면 마치 군함처럼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배바위에 도착한다. 기암괴석처럼 돌의 곶이 날카롭게 총이 난 배바위에 가까이 다가가면 그 웅장한 위용에 감탄하게 된다. 산과 강의 탁 트인 비경을 감상하며 누구나 카약을 즐길 수 있다. 숨 가쁘게 흐르는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물 위에서의 여유를 만끽해보자.

주소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길 153-5 배바위카누마을
문의 033.434.3010

하나의 AP, 하나의 세플러 AP Industrial



- ① Mr. Norbert Schoebel
- ② Mrs. Jacqueline Schurtz
- ③ 김지수 사원
- ④ 윤오석 부장
- ⑤ 김용진 사장

아시아 태평양 시장의 매출 신장에 나선다

AP 인더스트리얼(Industrial)은 글로벌 인더스트리얼의 일환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사업 개발을 맡고 있다. 세플러의 제품을 AP 지역 가운데 어느 시장에서, 얼마나,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이곳의 주된 역할이다. 더불어 제품 개발과 마케팅까지 AP 지역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AP 인더스트리얼의 궁극적인 목표다. AP 인더스트리얼은 기존의 11개 지역에서 새로 사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총 14개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으로 거점을 옮긴 AP 인더스트리얼은 건설기계, 농기계, 반도체, 진공펌프, 공작기계나 MRO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의 기술력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지닌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본 사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원 세플러(One Schaeffler)는 우리를 중심으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이 다양하게 공존하고 있는 AP 지역을 통합하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만큼 AP 인더스트리얼은 부서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견해를 나눔으로써 서로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좁혀나가고 있다. 글로벌기업인 세플러가 각국에 퍼져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조직처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 세플러(One Schaeffler)'를 위해서는 AP 인더스트리얼의 역할이 막중하다. AP 인더스트리얼을 총괄하고 있는 김용진 사장은 "앞으로 AP 지역 내 국가들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고객에 대한 접근 방법, 프로젝트 관리 및 시스템 일체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특히 "본 부서의 거점이 된 한국이 이러한 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s. Michelle G. Espinoza

향후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사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AP 인더스트리얼이 세플러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기대된다.

2015년 창원, 안산공장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창원공장 체육대회



창원공장의 체육대회에서는 개최식이 진행되기 전, MU별로 미리 예선전을 진행했던 축구와 족구경기의 결승전을 진행했다. 이른 아침부터 임직원 모두 응원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난 뒤, 개최사와 함께 체육대회가 시작됐다. 창원공장 체육대회는 공장, 연구소 및 남부 물류센터의 1,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참석했고, 연구소와 물류, 공장 내 지원부서가 단합한 3공장/지원팀을 비롯해 MU1, MU2, MU3 팀 총 4개 팀으로 나누어 경기가 진행됐다.

오전에는 네 팀의 줄다리기 예선, 협동 줄넘기와 함께 5인 6각으로 공차며 이어달리기까지 팀 단결력을 발휘해야 하는 경기들이 진행됐고, 100미터 달리기 예선전과 함께 오전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맥주 빨리 마시기 경기를 끝으로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찾아왔다.

점심 메뉴로는 단체 행사에서 빠질 수 없는 삼겹살 파티. 업무지원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삼겹살, 갖은 야채들과 함께 시원한 맥주를 들이키며 임직원 모두 푸짐하게 식사를 즐겼다.

오후에는 오전에 예선을 진행했던 줄다리기와 100미터 달리기의 결승전과 함께, 체육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계주 경기를 끝으로 순서를 마무리했다.

2015년도 창원공장 체육대회의 종합 우승팀은 베어링부품 MU로 우승기 전달과 함께 준우승, 장려상 및 격려상으로 4개 팀 모두 소정의 상금도 함께 수여 받았다.



날씨가 포근해지면서 온몸이 노곤해지는 봄기운을 떨쳐내고, 임직원 모두가 건강하게 업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가 창원공장(5월 8일), 안산공장(4월 27일)에서 진행됐다. 창원공장 체육대회는 연구소와 창원공장의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그 규모도 안산공장에 비해 큰 편이다. 줄다리기, 계주, 축구 등의 단체와 개별종목이 주를 이루는 창원공장과 다르게 참가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안산공장 체육대회는 경기 종목별 진행시간이 짧은 만큼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며 임직원들의 단합을 도모했다.

안산공장 체육대회



창원공장과 달리 안산공장의 체육대회는 2개 팀(화합, 단결)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전문사회자의 진행을 통해 임직원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과 체조로 시작된 대회는 오전 시간에 한마음 파도타기, 에어봉 릴레이, 풍선기둥 만들기와 줄다리기 경기가 진행됐다. 양팀 모두 뛰어난 단결력을 발휘하며 경기에 임했고, 오전에는 단결팀이 화합팀을 50점 차이로 앞서나갔다.

뷔페로 준비된 점심식사를 즐기고 난 뒤에는 화합팀이 뒤흔을 발휘하면서 단결팀을 맹추격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지네발 릴레이, 흥부 릴레이, 협동 제기차기와 같이 양팀의 단결력을 볼 수 있는 경기들과 함께 체육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계주 경기가 있었다. 안산공장 체육대회의 계주는 창원공장과는 다르게 계주 선수들 모두 독특한 의상을 갈아입고, 대형 바통을 들고 달리는 경기였다. 옷 갈아입으랴, 큰 바통을 들고 뛰랴 양팀 모두 정신 없었던 대형 바통 계주를 끝으로 종합 우승의 영광은 단결팀에게 돌아갔다.

창원과 안산에서 진행된 체육대회 모두, 우승팀의 시상 이외에도 임직원들을 위한 행운권 추첨을 진행했는데, 팀의 우승만큼이나 기대되는 추첨에서 당첨된 임직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다. 노사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는 창원, 안산공장의 체육대회는 임직원들의 해묵은 스트레스를 함께 날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힐링 체육대회

EVERGREEN(서울)의 봉사 현장

가정의 달 5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 함께하는 사랑밭과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부천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을 위해 체육대회를 열었다. 그 생생한 대회 현장 속에 EVERGREEN(서울)이 달콤 짭조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외된 아동들을 위한 작은 선물

‘팡!’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폭죽이 터지자, “와아~”하며 아이들의 함성이 운동장을 가득 메웠다. 한낮의 띄약별도 아이들의 열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듯했다. 지난 5월 16일, 부천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제2회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힐링 체육대회’가 열렸다.

함께하는 사랑밭과 부천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최하는 이 대회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여러 사정으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는 부천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에게 즐거움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저소득층 아동 1700여 명과 아동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육대회 현장 한편에는 EVERGREEN(서울)이 부스를 마련해 아이들이 체육대회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달콤한 솜사탕과 짭조름한 팝콘,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판박이 스티커다.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들뜨는 봉사자들. 이날만큼은 내 동생처럼, 한 가족처럼 아이들을 살갑게 대하고 싶다.



달콤하고 짭조름한 체육대회의 추억

아이들에게 줄 솜사탕과 팝콘을 준비하느라 부스 안은 대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옥수수는 얼마나 넣고 설탕은 몇 스푼을 넣는지, 아이들이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팝콘과 솜사탕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봉사자들은 기계 다루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 처음에는 서툰 솜씨 탓에 우왕좌왕했지만, 곧 먹음직스럽게 튀겨진 팝콘과 동그랗게 부푼 솜사탕을 능숙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체육대회 1부 순서가 마무리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아이들이 부스 앞에 죽 늘어섰다. “저도 주세요!” 아이들의 문전성시에 테이블을 가득 채웠던 솜사탕과 팝콘은 어느새 동이 나버려, 봉사자들은 서둘러 더 만들어야 했다. 솜사탕과 팝콘을 받아든 아이들의 표정은 무엇과 비할 수 없이 행복해 보였다. 판박이 스티커도 인기였다. “앗, 차가워.” 아이들의 볼에 물을 뿌려가며 정성스레 붙여준 스티커는 운동장을 누비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했다. 불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했던 체육대회는 오후 두 시가 되어서야 마무리됐다. 아이들은 아직도 체육대회의 여운이 남아있는 듯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에도 활기가 넘쳤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땀이 마를 새 없던 하루였지만, EVERGREEN(서울) 봉사자들의 표정은 아이들만큼이나 행복해 보였다. 달콤하고 짭조름했던 체육대회가 아이들의 마음에 오랫동안 자리하길 바란다.

+ mini interview



EVERGREEN(서울) 봉사단원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이나래

처음에는 팝콘 기계를 다룰 줄 몰라 많이 서물렀는데, 이제 팝콘 튀기는 건 자신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해줄 줄 몰랐어요. 저희가 준비한 팝콘과 솜사탕, 스티커를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행복했답니다. 봉사 현장이 아닌, 함께 즐기는 체육대회가 된 것 같아요. 오늘이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플러코리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뜨거운 여름과 함께 창원공장에 8명의 새 식구가 들어섰다. 세플러코리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이들이 말하는 '앞으로 나는 000한 세플러인이 되겠다'는 포부와 굳센 다짐을 들어보자.



김성진 - 창원공장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 MU

앞으로 나는 글로벌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글로벌기업인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면서 하나의 꿈이 생겼습니다. 글로벌기업에 입사하게 된 만큼 저도 발전해서 글로벌한 인재가 되겠노라, 다짐한 초심을 잃지 않고 매사에 진정성 있게 임하겠습니다.



김수진 - 창원공장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앞으로 나는 판타스틱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인으로서는 밝고 활기가 가득 찬 사원으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축구선수 반데사르처럼 열심히 맡은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문성주 - 창원공장 설비보전 테이퍼베어링 MU

앞으로 나는 당당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세플러코리아의 한 가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회사의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의 초심을 잃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어 스스로가 돌아보았을 때 뜻 깊은 회사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호 - 창원공장 H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앞으로 나는 파이팅 넘치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새로운 시작을 세플러코리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설레고 한편으로는 떨리기도 하지만, 신입사원의 패기를 잃지 않고 언제나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이상호 - 창원공장 치공구센터 창원

앞으로 나는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나의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맡은 바 업무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해내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장호근 - 창원공장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앞으로 나는 건강한 세플러인이 되겠다

웃으면서 밝게 일해서 주위 사람들도 저로 인해 행복할 수 있는 사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제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긍정에너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원 - 창원공장 LV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앞으로 나는 열정적인 세플러인이 되겠다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회사생활에 임하겠습니다. 비록 지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기르겠습니다. 세플러인으로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최영욱 - 창원공장 치공구센터 창원

앞으로 나는 믿을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다

동료들과 선후배에게 인정받는 인재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필요로 하도록 믿음직한 세플러인이 되기까지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날아라 슈퍼보드를
기억하나요?

소나기 소식으로 구름이 어수선한 토요일 아침,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진행된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취재의 동행을 위해 분주히 집을 나섰다. 개장시간 직전에 도착한 탓인지, 미술관 주변은 고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 미술관 내부에서는 개장 준비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여름호 '세플러가 읽어주는 문화이야기' 코너에 참가한 직원은 전주공장의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부서에서 근무중인 김기원 사원이다. 사보촬영을 기회 삼아 오랜만에 친구들도 볼 겸 서울에 올라왔다는 기원 사원이 만화책으로 만나본 허영만 작가의 작품은 <식객>이었다. <날아라 슈퍼보드>, <비트>, <타짜> 등 셀 수 없을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 허영만 작가의 손을 통해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새삼 놀라는 눈치였다. 만화책이라면 어디 가서 풀리지 않을 정도로 유년시절 열심히 만화책을 읽었지만, 그 중 많은 작품들이 허영만 작가의 작품이었던 사실에는 내심 놀라웠다.

#1



취재의 첫 촬영은 전시관 한편의 만화방에서 진행되었다. 만화보단 운동을 좋아했다는 김기원 사원은 만화책 읽는 포즈를 요청하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어색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서있는 게 매우 재미있으며, 능숙하게 촬영에 임했다. 촬영 중간 중간 어색해서 웃는 모습이 되려 만화책에 빠져든 모습이랄까. 촬영 중간에는 정말 만화책을 보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동행취재를 끝내고 집에 갈 때 중고책방에 들려 허영만 작가의 만화책을 좀 사서 가져왔단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실제로 귀갓길에 <사랑해>라는 책을 몇 권 구입해 집으로 갔다.



#2



오전 일찍이지만 주말에 진행된 이번 촬영에 있어서 관람객이 많이 몰려 촬영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요즘의 분위기 탓인지 소나기 덕분에 오전 내내 전시장은 생각보다 한산했다. 촬영을 준비하는 동안 김기원 사원은 혼자 잠시 전시관을 둘러보기도 했다. 새빨간 벽에 전시된 연필 스케치 작품들은 하나같이 강렬하고, 인상적이었다. 전시관 내 촬영이 시작되고, 학창시절 행사 진행을 많이 맡아보았다는 김기원 사원은 일반 포즈에 더욱 능숙했다. 즉흥적인 카메라 세례를 몇 번 받아본 감상이 여기서 발휘되는 듯했다. 사오정 조각상과 사진을 찍을 땐 "입속에 들어갈까요?"라고 짐짓 너스레를 떨면서, 유쾌한 이번 전시회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익살스런 포즈들을 쏟아냈다.



#3



마지막으로 촬영은 전시장 한켠에 마련된 만화 <제7구단>의 캐릭터 '미스터 고' 옆에서 말풍선을 들고 진행했다.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는 이 작품의 대사 중 하나인 "야구는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니까요."라는 문구는 김기원 사원의 마음도 사로잡은 모양이다. 유쾌하게 촬영에 임해준 김기원 사원 덕분에 촬영도 만족스럽게 마무리했다. 먼길을 달려와 준 김기원 사원에게 이번 촬영이 새롭고 즐거운 경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김기원 사원의 휴대폰 메시지 프로필 사진을 한동안 장식할 것 같은 이번 코너의 촬영 사진들도 기대해 본다.



#4

서울사무소

2015년 경영설명회 실시



4월 27일, 서울사무소를 시작으로 창원, 전주, 안산공장에서 2015년도 경영설명회가 진행되었다. 일정에 따라 사업장별로 전 임직원이 참석하여 김재현 대표이사의 2015년 경영 현황에 대한 발표 감상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공장 사업장의 경우, 교대근무로 인해 경영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직원들은 별도의 자리를 통해 경영설명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마라톤동호회 상반기 마라톤대회 참가



5월 16일, 서울사무소 마라톤 동호회원 10명은 제14회 서울신문 하프마라톤에 각각 10km, 하프에 참가하여 모두 건강하게 완주하였다. 마라톤동호회는 대회 참가 이외에도 매달 정기훈련을 통해 체력을 다지고, 각자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신청자를 모집하여 함께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일 기념식



6월 1일, 서울사무소 및 각 사업장에서 창립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2015년은 세플러코리아의 창립 9주년이자, 신한베어링 설립을 기준으로 62년을 맞이하는 해다. 김재현 대표이사는 창립 기념사에서 세플러코리아가 선도적인 개발 파트너이자 공급업체로서 미래를 위한 움직임을 만드는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올해의 다짐을 전했다. 대표이사의 창립기념사와 함께 각 사업장에서는 장기근속 임직원 및 모범사원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서울사무소 미니올림픽



6월 5일,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서울사무소 미니올림픽은 재경이 1위를 차지하면서 끝을 맺었다. 2위에는 정보시스템이, 3위에는 사시스템 BD가 올랐고, 순위권에 오르지 못한 3개 부서는 부상으로 소정의 부서식사를 전달받았다. 투호, 병뚜껑 까기, 빨대 던지기 등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간단하고 재미난 종목들을 통해 임직원 모두가 업무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날려버리고, 부서간 의사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볼링동호회 정기모임



6월 10일, 서울사무소 볼링동호회의 정기모임이 있었다. 동호회원 14명이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위치한 더 프레임 볼링라운지에서 함께 볼링을 즐기면서 나른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농구동호회 정기모임



6월 17일, 서울사무소 농구동호회의 정기모임이 있었다. 신당역 근처 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모임에는 동호회원 14명이 참가하였고, 함께 2시간가량 경기를 즐겼다. 무더운 날씨 속에 모두 신나게 경기를 즐기고 저녁식사를 한 뒤, 이날 모임을 마무리했다.

서울사무소 부서단위 배식봉사

서울사무소는 매달 부서단위로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4월 24일에는 인사, 5월 22일에는 해외영업 및 산업기계 사업기획이 참여했다. 오는 7월 24일에는 중복을 맞이하여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식수인원에 맞추어 삼계탕을 후원하고, 배식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협력회 봉사활동



7월 10일, 현대자동차협력회가 후원하고 있는 지적장애인 보호시설인 바오로교실에서 협력회 회원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었다. 세플러코리아를 비롯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적장애인들과 함께 근교 나들이를 다녀왔다.

대학생봉사단 EVERGREEN(서울) 봉사활동

7월 11일, EVERGREEN(서울)은 성모보호작업장 지적장애인 40여명과 함께 몽촌토성 한성백제박물관을 방문했다. 봉사단원들과 박물관 전시품들을 관람하고, 미니 게임도 함께 즐기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2015년도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실시



지난 5월부터 2015년도 20년,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여행이 진행되고 있다. 장기근속자 해외여행은 오는 10월까지 유럽, 호주, 미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장기근속자 중에서 근속여행을 신청한 임직원 및 가족을 포함해 395명이 9차수에 걸쳐 해외여행에 참가할 예정이다.

창원공장

2015년 기술명장 임명



4월 1일, 2015년 기술명장 임명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임명에는 창원공장 소속 3명과 연구소 소속 1명이 임명되었으며, 앞으로 본인의 기술에 대한 회사 기여도 향상과 기술 전수 및 후배 양성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효도관광 실시



5월 6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하였다. 창원공장은 어버이날을 전후로 임직원 부모님을 초대해 각 지역의 유명 관광지를 하루 코스로 돌아보는 행사를 매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180여 명의 임직원 부모님을 초청해 전라남도의 낙안읍성과 송광사를 관광했다.

창립기념일 기념식



6월 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창원공장에서도 창립기념일 기념식이 진행되었다. 창립기념사는 이근삼 공장장이 대독하였고, 장기근속 및 모범상에 대해 160여 명의 임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학생봉사단 EVERGREEN(창원) 봉사활동



6월 20일, 4월부터 시작된 EVERGREEN(창원)의 3번째 활동이 진행되었다. EVERGREEN(창원)은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지적장애인과 함께 벽화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관 내 벽화 작업을 시작으로 창원시내 노후 시설 벽화 작업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공장

효도관광 실시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180여 명의 임직원 부모님들을 모시고 경상남도 외도로 효도관광을 다녀왔다. 전주공장의 임직원들을 건강하게 길러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마련된 이번 여행에서 일정 내내 아름다운 외도의 자연 경관에 참가하신 임직원의 부모님들의 행복한 웃

음이 끊이지 않았다. 참가한 임직원들 모두 보람된 시간이었다.



소방훈련 실시



5월 22일,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시 대처를 위한 소방훈련이 진행되었다. 전주 덕진소방서의 참관 아래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1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화재 발생시 대처 방법 및 각자 역할에 대한 수행 능력을 배양하였다. 평상시에도 안전과 화재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고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대학생봉사단 EVERGREEN(전주) 봉사활동



5월 23일, EVERGREEN(전주)은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함께 센터 근처의 공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EVERGREEN(전주)은 저소득층 자녀들과 함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며, 앞으로 학습지도 및 동행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기념일 기념식



6월 2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기근속상 및 모범상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창립기념사는 박찬우 공장장이 대독하였고, 세폴리코리아와 전주공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보훈의 달 장학금 전달

6월 19일,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전주보훈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4명의 보훈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주공장에서는 국가 보훈자들의 희생을 기리고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매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산공장

메르스 관련 안전조치 시행



최근에 유행중인 메르스에 대한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아침 출근시 임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체온이 정상 범위를 넘는 임직원의 경우, 보건소에 연락 후 적절한 검사 절차를 거치고, 필요시 자가 격리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창립기념일 기념식



6월 1일, 회사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장기근속상 및 모범상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창립기념사는 김재현 사장을 대신하여 엔진시스템 BD장인 남정현 상무가 대독하였다.

여름철 해충 방역 작업 실시



6월 18일, 안산공장 외곽 전체에 대한 연무방역 및 우수맨홀, 정확조에 대한 소독 방역을 시작했다. 혹서기 동안 해충 방역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월 2회, 매2주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연구소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 워크숍



4월 25일,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엔지니어링(선임매니저:도정호 수석연구원)은 밀양댐 인근 펜션에서 1박2일 워크숍을 가졌다. 업무간 건의사항이나 고충들을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나누는 기회를 통해 부서원 간의 팀워크를 도모하는 시간이 되었다.

Creo 2.0 Upgrade Trainer Training



당사의 3D설계 프로그램인 기존 Pro/Engineer Wildfire가 단종되고 Pro/Engineer Creo 2.0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되어 세플러 그룹의 Pro/Engineer도 Creo 2.0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Pro upgrade Pro/Engineer Wildfire IV to Creo Parametric 2.0 Project'가 시작됨에 따라 ProE 사용자에 대한 업그레이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전주연수원에서 사내강사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6월 8일부터 4일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세플러 테크놀로지 AG&Co.KG의 Mr. Berwind, Andreas(CAD Methods and Support 소속)가 연구소 내 ProE 사용자들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5. 4

BU 구매 Automotive
서보영 | 4일
본인 결혼

자금
안창석 | 11일
본인 결혼

수급계획 및 물류관리 창원
서관후 | 18일
본인 결혼

트랜스미션 어플리케이션 BU 영업
한정규 | 19일
부친 회갑

중부물류센터
유영우 | 25일
자녀 결혼

남부물류센터
허연철 | 26일
본인 결혼

남부물류센터
김성미 | 26일
본인 결혼

2015. 5

산업기계 어플리케이션 에너지&중공업
김광현 | 6일
장모 회갑

창원공장

2015. 3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영규 | 31일
자녀 출산

2015. 4

베어링부품 MU
신태중 | 4일
장모상

설비보전 창원 베어링부품 MU
김수철 | 6일
조모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정영수 | 10일
장모상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유경호 | 11일
자녀 결혼

LV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계오 | 15일
부친상

품질보증 베어링부품 MU
이명오 | 15일
부친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이태용 | 17일
모친상

치공구센터 창원
김대혁 | 19일
자녀 결혼

품질보증 창원
이범주 | 23일
부친 회갑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고강은 | 23일
자녀 결혼

단조 세그먼트
최성동 | 23일
자녀 출산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한동기 | 25일
본인 결혼

치공구센터 창원
한광용 | 25일
자녀 결혼

공정기술 창원 생산기획
이종원 | 29일
자녀 출산

선삭 세그먼트
강수진 | 30일
장인상

2015. 5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김기영 | 1일
장모상

생산계획 볼베어링 MU
조종도 | 3일
자녀 출산

단조 세그먼트
문승진 | 3일
장인상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심정환 | 4일
모친 회갑

설비보전 창원 테이퍼베어링 MU
이영일 | 5일
모친상

대형볼베어링 세그먼트
신강기 | 5일
부친상

생산계획 베어링부품 MU
서성민 | 10일
본인 결혼

품질보증 창원
이재인 | 10일
부친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백상근 | 10일
자녀 출산

치공구센터 창원
강병열 | 17일
자녀 결혼

설비보전 창원
최진성 | 17일
자녀 출산

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이주배 | 22일
장인 회갑

품질시스템
장강욱 | 23일
모친 회갑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김중주 | 27일
자녀 출산

2015. 6

설비보전 창원
강태봉 | 3일
부친상

테이퍼롤러 세그먼트
신중환 | 13일
본인 결혼

테이퍼베어링열처리 세그먼트
김경윤 | 15일
모친 회갑

치공구서비스 베어링부품 MU
김상갑 | 20일
자녀 결혼

품질시스템
김홍진 | 20일
본인 결혼

전주공장

2015. 4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철호 | 1일
조모상

휠베어링 세그먼트
김천익 | 3일
장인상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진호 | 6일
장인상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상현 | 14일
조모상

품질보증 전주
김충용 | 17일
모친 회갑

열처리 세그먼트
곽문석 | 17일
장인상

열처리 세그먼트
배영식 | 22일
자녀 출산

열처리 세그먼트
이학천 | 30일
부친상

2015. 5

볼베어링 세그먼트
한동재 | 6일
부친 회갑

볼베어링 세그먼트
김대기 | 9일
자녀 출산

품질보증 전주
김순남 | 8일
모친상

휠베어링 세그먼트
추병수 | 12일
부친상

공정기술 전주
김남희 | 15일
자녀 출산

품질보증 전주
김정오 | 15일
모친상

테이퍼베어링 세그먼트
김준형 | 27일
부친 회갑

2015. 6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상철 | 1일
장인 회갑

휠베어링 세그먼트
이영록 | 15일
자녀 출산

연구소

2015. 4

연구기획
김경운 | 25일
조모상

2015. 5

제품기술팀
박중호 | 8일
부친 회갑

안산공장

2015. 4

공정기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장경훈 | 11일
본인 결혼

업무지원 안산
하준호 | 11일
장모상

2015. 5

품질보증 안산
정윤영 | 7일
장모 회갑

엔진부품 세그먼트
이금구 | 12일
장인 철수

2015. 6

공정기술 벨트&체인&베어링 세그먼트
박진열 | 13일
본인 결혼

엔진부품 세그먼트
최규화 | 22일
모친 회갑

